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夏節衛生
特히 淸凉飮料를 團束하라

一

갑작이 日氣가 더워짐을 따라 어느곳 街頭에는 淸凉飮料水와 氷雪菓子類가 横溢하여 더위에 허덕이는 大衆을 誘惑하고잇다 其中에도 "아이스케익"은 比較的 販賣의 關係로 兒童들을 비롯하여 一般의 嗜愛물이 되고잇는데 이 大衆의 嗜愛物인 "아이스케익"中에 京城府衛生課에서 分析發表한 比較表에 依하면 淸溪川이나 一般下水口의 汚水보다도 不潔한 黴細菌이 더만히 包含되어잇는 것이 判明되어 京畿道와 京城府兩學務課에서는 學校의 兒童과 生徒들을 通하여 一般家庭에게 "아이스케익"의 危險과 害毒을 徹底히 認識시키기로 되엇다하니 그 얼마나 慘憺할 일인가 그러치 안하여도 一年中 가장 傳染病이 跋扈하는 夏節衛生의 安全을 確保키 爲하여 氷雪業者나 取締當局이나 一般家庭이나 다 가티 再三熟考치 안흐면 안될 問題이다.

二

勿論 "아이스케익"의 "業者"는 警察當局의 取締規則에 따라 "아이스케익"의 "製造에는 반드시 上水를 使用할것은 勿論이고 첫가락 消毒을 잘할것, 有毒染料를 쓰지말것과 "삿가릉"을 使用치말것等 여러가지 制限을 맛고잇스나 事實上에잇서서 業者들이 어느 程度까지나 이 規則을 嚴守하는지 疑問이다 設令 業者中에는 一人도 犯則者가 업서 指示대로 淸潔히 製造한다하더라도 아이스케익의 原料中에는 牛乳, 팟等 腐敗하기쉬우며 黴菌이 繁殖하기 쉬운것이 만허서 製造過程과 販賣期間等에 依하여 目的하는바와가튼 無害有益한 淸凉劑가 되기를 期必키 困難타 아니할수업다 이 事實은 京城府 衛生課의 分析表가 證明하는바로 衛生課에서는 精確을 期하기 爲하여 京城市內를 地域的으로 나누어 東西南北여러곳의 汚水와 그 汚水近處에잇는 商店의 "아이스케익"을 사다가 分析하엿는데 그結果는 모두가 그 地域의 汚水보다더 만흔 細菌이 包含되어잇는 事實이 數字的으로 나타낫스니 이 엄숙할수업는 科學的證據를 그 무엇으로 反駁할수잇슬가.

三

如何튼 이 比較分析에 依하여 "아이스케익"하나를 먹는것은 그만한分量의 下水口물을 먹는 것보다도 더危險하고 害롭다는 事實이 判明되엇다 卽 只今까지 貴한子女들의 더위를 풀러 주기爲하여 一般家庭에서 "아이스케익"을 사준것은 當場의 더위는 덜어주엇슬지 몰라도 그만큼 子女의 衛生에 有害한 細菌을 먹인 結果와 가게 되엇다할수잇다 이가티 危險千萬한 有害物은 그 害毒을 알은 以上 今後부터는 子女들에게 斷然 "아이스케익"을 먹지못하도록 嚴禁하여야 할것이다 "個中에는" 所用업는 소리가 만타 "못먹어 病난다"는 사람도 잇슬지나 이것은 不當한 抑說로서 그만큼 危險性이 만흔것을 애써먹을것이 무엇이랴 이와가티 科學的으로 徹底히 만흔것이 判明된 以上 取締當局者는 加一層業者取締를 嚴重히 할뿐만아니라 一步나아가서는 銃後國民의 衛生을 爲하여 夏節衛生을 爲하여 그 製造를 嚴禁하는것이 緊要타 할것이다. 京城府衛生課의 比較分析表만으로는 信用이 업다면 달리 分析하여 보든 亦是가튼 結果에는 製造를 아주 禁止시킴이 衛生政策上

良藥이 아닐가한다 그런므로 傳染病季節을압두고 取締當局은 淸凉飮料水, 氷雪業者 뿐만아니라 一般飮食業者의 衛生을 자주하여 조금도 不潔한點이 업게하기를 苦言드린다 一般飮食店食堂 코히店 料理店 衛生事의 不潔이 比小飮食店의 衛生가아니라하니 그 必要가 一般的賣하다고잇는다.

貿易前貸金 補償制度實施

貿易前貸金補償制度實施에關한 協議會는 五月二十九日 午前九時總督府第三會議室에서 開催되엇는데 銀行側의 準備形便으로 반드시 一定的方針을 取하지안코 準備가 되는 行부터 언제든지 實行에 옮기기로 되엇다 朝銀은 大體 六月一日부터 實施되엇스며 其外의 三和, 安田, 第一의 三行은 多少遲延될 모양이어 近近다시 第二次協議會를 열기로 되엇다한다

石井勸銀總裁 東株理事長就任辭退

【東京電話同盟】東株理事長에推薦된 石井勸銀總裁는 關係各方面과相議 熟考한結果 一日午前 日本銀行에서 結城總裁와 會見하고 就任을 正式辭退하엿다

皷浪嶼共同租界改組 要求五個條를說明
最初의懇談的領事會議서

【厦門一日發同盟】皷浪嶼共同租界工部局改組에 關한 五個條의 我要求를 貫徹하고저 工部局側及 各國領事와 個別的會談을하고잇던 内田總領事는 一旦休止하고 懇談的領事團會議로 更히 我主張의 實現을 꾀하기로되어 一日午後三時부터 二時間동안 皷浪嶼日本總領事館邸에서 日英米, 獨, 蘭等 各國領事가參集 最初의 領事團懇談會를 開催하고 我五個條의 要求에對하여 懇談을거듭하엿다

于右任死亡說
我第四次重慶空爆時

【上海一日發同盟】當地에達한確實한情報에依하면 지난五月二十五日 我海軍航空隊의 第四次重慶大爆擊으로 國民政府監察院長 于右任은 隣家에爆彈이命中되어 그震驚에 死亡하엿다고한다 于右任은 陝西省出身 日本과英國에留學한 國民黨最高元老의한사람이다

八倍敵集團을斬殺
村上少尉力鬪

【하이랄一日發同盟】지난五月二十八日의 戰鬪에서 我軍은我에 八倍되는 外蒙兵蘇聯機械化部隊를 相對로 奮戰하여 數多의 武勇傳을 남겻는데 就中村上少尉의 奮戰은 特히 活劇하여 國境警備의 자랑으로서 山縣部隊長의 獎賞을 바덧다! 山縣部隊村上憲治少尉는 ○○을指揮하여 奮戰中 前方約三十名의 蘇聯兵을 發見하고 이를 五十米突의 距離까지 誘致하여 零距離射擊을 加하다가 少尉는 뒤차라는 드시 部下○名과 함께 軍刀를 휘두르면서 蘇聯兵集團으로 뛰어들어 血鬪亂戰後 그 全部를 斬殺 凱歌를 올렷다 이 戰鬪에서 村上少尉는 敵手榴彈으로 左眼右腕을 負傷하고 兵一名이 戰死하엿슬뿐이다

外蒙兵의動向
我軍嚴重警戒

【海拉爾一日發同盟】情報에依하면 外蒙古軍은 其後 再建에 注力하여 우란밧에서 約○○○臺의 飛行機를 톰스크에 集結하여 待機시키고 잇는模樣이나 一兩日은 國境附近에 姿態를나타내지 안흠으로 我荒鷲는 髀肉之嘆을 하고잇는바 我空軍으로서는 彼等이 領空을 侵犯치 안는限 나아가서 討伐치안흘것은 勿論으로 愼重히 彼空軍의 動勢를 監視하고잇다

閑院宮妃殿下께 兩陛下慰問品下賜

【東京一日發同盟】閑院宮載仁親王妃智惠子殿下께서는 去月二十五日以來 肺炎症狀으로 永田町御殿에서 大瀨博士의 拜診을바드시며 御療養中이시던바 御經過御良好하시어 一日御體溫도御平熱로 回復되섯다고 拜承된다 殿下께서는 御六十八歲의 御高齡이시므로 神經痛때문에 御手足이 御不自由하사 長年御療養하시어 御恙彌하섯스므로 御殿에서는 繼續御療養하시는中이시, 天皇, 皇后兩陛下께옵서는 一日午後御慰問品을 下賜하옵시어 御慰問을하옵섯다

照宮殿下 蠶絲試驗場에御行次

【東京電話同盟】女子學習院中期四學年에 御在學中이신 照宮殿下께서는 御學友六十餘名과함께 一日午後零時十分學習院을 御發하시어 蠶絲試驗場에御行次 平塚場長以下 技師等의 御說明을드르시고 御興味깁게 場內를御巡覽하신後 午後二時半試驗場御發 竹築에御歸還하시엇다

及川司令長官
一日,各國司令官,幕僚招待

【上海一日發同盟】英米佛伊各國極東艦隊 司令長官의 來滬를 機會로 及川支那方面艦隊司令官은 一日 正午부터 부론드에이·만숀에 各國司令長官과 幕僚를 招待 午餐會를 開催하엿다 出席者는 야넬大將(米) 레크中將(佛) 노블大將(英) 꼬차가大佐(伊)를 비롯한 各幕僚, 日本側으로부터 及川司令長官 共戶陸戰隊 司令官以下 各幕僚等 五國 司令長官은 圓卓을에워싸고 午餐을 함께하며 一時間半동안 懇談하엿다 (寫眞은 及川司令長官)

御差遣宮台臨奉仰 軍艦翔鶴進水式
一日横須賀海軍工廠에서

【横須賀一日發同盟】英米의 大建艦計畫을 모르는체하고 帝國海軍이 獨自的 計畫에 基하여 横須賀海軍工廠에서 建造中이던 翔鶴은 至嚴하옵신御側에서 御差遣하옵신伏見宮博恭王殿下의 台臨을 奉仰 高松宮妃殿下, 久邇宮朝融王妃殿下御臨場下에 一日午後四時二十分 光榮의 命名進水式이 擧行되엇다 軍港에碇泊한 各艦隊는 아침부터 모두 滿艦飾을베풀고 各官衙를 비롯하여 市內各戶의 門에 揭揚된 國旗는 軍艦翔鶴의 前途를 祝福하며 軍港을 振動시키는 皇禮砲, 各艦乘務員의 登舷禮, 海軍儀仗隊軍樂隊의 國歌奏樂裡에 御差遣宮殿下께서는 午後三時二十六分 横須賀驛 御着 長谷川長官以下幕僚 奉迎裡에 鎭守府에入하사 御先着하신 高松宮妃殿下와 久邇宮同妃兩殿下와도 御對面하신後 定刻 鎭守府 御出發 進水式에 台臨하섯다 午後四時二十分 米内海相은 進水命令書를 朗讀, 이를 長谷川司令長官에게 주고 다시 荒木工廠長에게 手交되어 工廠長은 進水主任에게 命하여 그 進水를 傳하엿다 이리하여 工廠長의 銀斧一閃, 支綱切斷의刹那, 海上에서 울려오는 奏樂에 和하여 群衆으로부터 熱한 萬歲聲과함께 同艦은 進水하엿다

五月廿七日 海軍記念日當日上海市中을 行進하는 我海軍陸戰隊

滁梶市敗敵 二千을猛爆擊

【南昌一日發同盟】一日朝來我陸軍下田, 北川兩航空部隊精銳○○機는 南昌東北二十四키로의 滁梶市에서 蠢動中인 敵二千에 猛爆擊을 敢行하고 的確한 機銃掃射를 하여 이를 北方으로潰走시켯다

越境外蒙軍驅逐
할하國境을確保

【하이랄一日發同盟】我山縣部隊主力及騎兵部隊는 三十一日午前二時를期하여 突然파루샤갈前線高地로부터 越境한 外蒙兵陣地에對하여 果敢한 夜襲戰을 敢行하고 同日 새벽에걸저 數時間동안 追擊戰을行하여 드디어 越境外蒙兵을 一兵도 도망보내지안코 할하河以南에 驅逐하여 完全히 할하河國境線을 確保하엿다 繼續 我方은國境線附近에서 敵의 動向을 嚴重監視中으로 이戰鬪에서 我方損害는업고 敵遺棄死體는 多數에 達하엿다

日滿軍의奇襲作戰
外蒙兵을完全擊滅

【하이랄一日發同盟】不法侵犯해온外蒙軍에 對하여 二十八日文字그대로 疾風迅雷的形勢로決行된日滿軍의 奇襲作戰은 越境外蒙兵의 心膽을 서늘케 하엿다 敎事戰鬪後 蘇聯兵, 外蒙兵의 道具가 戰場에 散亂해 엇는것 等을 보아도 如何히 唐荒하엿든 가를 알수잇다 그러나 寡兵으로서 堅固한 陣地에 據한外蒙兵 蘇聯機械化部隊에 對하여 日滿軍의 阿修羅와 가튼 形勢로 所期作戰計畫대로 할하河渡河點을 抑壓하여 敵退路를 遮斷하여 드디어, 潰滅的打擊을與하엿다 記者는 ○○部隊에 從軍하여 壯烈한 敵退路遮斷作戰에 參加하엿섯다 我部隊는 敵陣地의 稜線을 第一線으로 散開하엿다 記者는 丘陵線기슭의 稜線에서서 熱鐵과가튼 意氣를 느낄수가잇섯다 땅땅하는 체코機銃의 소리를내면서 金屬的振動이 我等의頭上을 지내갓다 『野砲彈이다』라고 感한때 二彈三彈 轟然한 音響을내면서 炸烈하엿다 我○○部隊는 敵陣의背後를 돌러 猛烈 砲擊을 開始하엿다 이것을 할하河對岸의 外蒙側으로부터 敵砲兵이 猛烈한 十字砲火를 퍼부어왓다 敵은 窮鼠之態勢로 射擊해와다 戰場一帶는 彼我의砲煙과 銃彈으로狂亂하엿다 어때 彼方에서 大地를 찟는듯한 振動이잇섯다 『注意』하라고 軍刀를 손에 몸을 꾸부리고잇던 將校가 突然외치면서 稜線을넘는데 몸을꾸부리고 잇던記者는 몸듯섯다 敵陣을 바라보면 트라소型의것八臺가約一千米突前方에서 疾驅해온다 『○○射擊』이란 指揮官의 叱咤와함께 友軍은 砲火를 퍼부엇다 初彈은不適하고 第二彈은 先頭의一臺에 命中 忽然 불을吐하면서 炎然하엿다 이어서第三彈은또一臺를 顚覆시킨바 남은六臺는 方向을 轉換하여 我砲火를避하여 稜線으로 숨어버렷다 十時가 되자 戰場後方上空一千米突에서 飛行機約百臺가 空中戰을 展開하엿다 곳敵機一機는 黑煙을 吐하고 降下하야 外蒙側에 墜落하엿다 記者는 無意識的으로 손을 흔들면서 부르지젓다 十分後空中戰이 繼續되는中 十數臺의 敵機가 或은 불을吐하고 或은 墜落되엇다 友軍機는 노치지안흐려고 追擊하엿다 空中戰의 勝利로 地上部隊의 戰意는 益益軒昂하여 敵陣을蹂躪하면서 進軍 이리하여 正午지나서 할하 홀스텐兩河合流點가까이 前進하자 銃砲聲은 殘分間 잠잠하다 敵은 이미滿領內陣地를 放棄하고 外蒙領으로 遁走해버렷다 記者는 蘇聯兵外蒙兵의 屍體를 넘어 稜線의頂上에섯다 눈아페 斷崖下에 할하河가 흐르고잇다 對岸은 滿洲國보다 노픈地點한高原이다 高原地帶는 멀리 地平線까지빼처 暗黑外蒙의片鱗을 몰수잇도록 되엇다 문득본즉 對岸의上流에는 百餘輛의裝甲車類이 點點히 보혓다 外蒙에서 間歇的砲聲이 들렷다 外蒙砲兵의 根氣잇는 砲聲이다 記者는 멀리 砲聲을 들으면서 ○○部隊長아페가서 占領人事를하엿다

蘇主張貫徹術策
英政府,協定成立遲延을豫想

【倫敦三十一日發同盟】英國政府에서는 蘇聯政府가 反獨戰線參加에 對한 英國案을 即時受諾하리라고 期待하고잇섯든만큼 三十一日夜의 모로토프外務人民委員의 演說에 失望의 빗치 濃厚하다 모로토프外務人民委員이 指摘한바는

一、協定을 專혀防禦的으로할것
一、蘇聯의西部國境을例外업시保障할것
一、五相援助의 義務를 具體的으로協定할것

의三點인바 更히英國政府와의 關係改善을 希望하고 또獨逸政府와의 通商交涉을 再開할 意思가잇다는等 맘성을 부리고잇는것으로보아 一層强硬한 外交로 自國의主張을 全的으로貫徹시킬것으로보이는데 特히蘇聯은 英國의國際聯盟의 原則을持出하며 援助義務發動을 曖昧히하고잇는點을 强調하고 또뿔칸三國에도保障을擴充할 意向으로解釋된다 勿論英蘇兩國意見은 原則上 一致되어잇스므로 結局은 協定이成立될것이나 豫想보다多少遲延될것은 避할수업는바이다

華盛頓官邊
依然協定成立希望

【華盛頓三十一日發同盟】모로토프外務人民委員이 英佛蘇三國協定案에不滿의意를 表한것은 華盛頓官邊에서도 意外의感을깁게하고잇는데 아직交涉前途는 全혀 絶望이라고는할수업다고 一般의希望을부치고잇다 特히 一般的集團保障制의 再建이 世界平和維持에 有力할것을 强調하고 三國協定이 그基礎가될것을 依然希望하고잇는模樣이다

中島總裁에게 總裁單一化進言
政友會革新派有志蹶起

【東京電話同盟】政友會革新派의 行吉, 小笠原, 松川三氏는 一日午前十時 牛込의私邸로 中島總裁를訪問하고 三氏로부터 重大時局을當하여 我政友會가 兄弟相鬩함과가틈은 遺憾千萬이다 久原, 中島兩總裁는 모름지기 握手하여 總裁一元化를 꾀하도록 努力해주기바란다 我等과 가튼생각을 가지고잇는者가 革新派陣營內에도 아마 多數잇슬것이므로 我等이 一投石을한以上 이運動은 急激히 擴大展開될것이다 어떠튼 特히 留意하여 善處해주기바란다는旨를 述하고 板野, 南, 淺井, 小笠原, 行吉, 松川七氏의 連名으로 左記要旨의 進言書를 手交하엿다 이에對하야 中島總裁는 趣旨는 贊成이다 自己도 그와가튼생각으로 今日까지 努力해왓다 事情은 잘諒承하엿스니 善處하겟다 그러나 諸君의 行動이 活潑히되면 잘될지 안될지 모르니 이點을 注意해주기바란다는旨를 答하고 會見을 마치엇다 右總裁一元化運動은 一黨二總裁의 現狀을不滿히녀기는 多數黨員의 要望의 第一聲으로서 注目되는同時에 中島總裁擁立派 革新派首腦部가 如何히 處置할가 그推移는 자못注目된다

進言書(要旨)

압서 我等이 革新同志會를 結成한것은 現下의 重大時局에 對處하여 하루速히 代行委員을 廢止하고 新總裁의 推戴를 欲望한데 지나지안햇다 그런데 그結果는 我等이期待하엿던 革新의 實이 나타나지 안흘뿐아니라 一層 黨內의 對立抗爭을 深刻하게 하여 國民의 指彈을 밧고잇다 이때 黨內對立을解消하고 總裁를 單一化하여 크게 黨規를 [illegible] 하려는 至誠을가지고 我黨의 [illegible] 하다 貴下는 我等의 [illegible] 하여 [illegible] 局面收拾에 [illegible] 하기를바란다 (寫眞은 中島氏)

平生釟三郎氏
平沼首相과要談

【東京電話同盟】北支派遣經濟最高顧問平生釟三郎氏는 一日午前十時半首相官邸에서 平沼首相을 訪問 要談을 遂하고 同四十五分辭去하엿다

近衛無任所相 近近園公訪問

【東京電話】近衛無任所相은 六月三日午後一時 東京驛發列車로 興津으로가서 四日에는 同地에서 所用을마친後 一泊, 五日午前興津坐漁莊에 西園寺公을訪問 內外諸般問題에 關하여 情勢報告와 밋意見交換을 行하기로되엿다 近衛公의 園公訪問은 約一年만으로 그間의 內閣更迭과 無任所相으로서의 入閣, 事變處理方針의 發展, 歐洲事情의 變轉에 依한 諸情勢의 變化等 內外兩面에 直面하여 重要한 變化가 만흐므로 어날意見에서 近衛公은 此等諸問題의 經過를 詳細히 報告하는同時에 最近政情을 報告하여 忌憚업시 意見交換을 行할것으로 그內容은 注目된다 (寫眞은 近衛無任所相)

『內鮮一體』訓示
全北서傳達會議

【全州電話同盟】臨時道知事會議에서의 內鮮一體强化決定에 關한 南總督의 重大訓示에 基하여 全北知事는 三十日 道廳職員을 道會議室에 召集하고 約一時間동안 訓示를 傳達하고 또 一日은 午前八時부터 道內府尹 郡守, 警察署長과 中等學校長의 協議會를 開催하고 總督訓示를 傳達하는 同時에 實現에 關한 八項目을 明示하고 一時間餘에 詳細訓示한후 閉會하고 繼續하여 國民精神總動員 農山漁村振興運動强化決定과 農山漁村振興運動의 具體的連絡協調와 內鮮一體의 具現方策에 對하여 府尹 郡守 警察署長의 合同協議會를 開催하고 各種意見의 開陳 當局의 指示等이 잇슨後 同十一時半 閉會하엿다

川島總裁全南出張

精動朝鮮聯盟總裁 川島大將은 光州에서 全南道聯盟大會에 臨席次 二日午前七時五十五分發列車로 出張하엿다가 六日歸任할 豫定이다

朝鮮産春繭 値基決定

總督府에서는 一日午前九時부터 朝鮮産春繭의 値基協定會議를 開催한바 議論이 紛糾되여 午後一時부터 各六名式의 小委員을 擇하여 前後三時間半동안 小委員會를開催 夕陽에 이르러 겨우 總督府及各道와 製絲協會사이에 左와如히 協定이 成立되엇다

一、中心絲價一千百七十圓을 基準으로 一千百六十二圓以上 一千百七十八圓未滿에 잇서서는 掛目五十五掛로하고 値基는二百九十圓 絲價一千二圓以上一千三百六圓未滿에잇서서는 絲價十六圓이 騰落될때마다 一掛를 增減하기로되엇다

記

絲價		掛目
一,〇〇二圓以上	一,〇一八圓未滿	四五
一,〇一八	一,〇三四	四六
一,〇三四	一,〇五〇	四七
一,〇五〇	一,〇六六	四八
一,〇六六	一,〇八二	四九
一,〇八二	一,〇九八	五〇
一,〇九八	一,一一四	五一
一,一一四	一,一三〇	五二
一,一三〇	一,一四六	五三
一,一四六	一,一六二	五四
一,一六二	一,一七八	五五
一,一七八	一,一九四	五六
一,一九四	一,二一〇	五七
一,二一〇	一,二二六	五八
一,二二六	一,二四二	五九
一,二四二	一,二五八	六〇
一,二五八	一,二七四	六一
一,二七四	一,二九〇	六二
一,二九〇	一,三〇六	六三

그리고 前表의 絲價以外에 騰落이 잇슬境遇에는 前表에 準하여 總督府에서 裁定하여 通報하기로함

帝國政府,正式으로 슬로바키아國承認
有田外相書翰으로同國에通告

【東京電話同盟】帝國政府는 三十一日閣議에서 슬로바키아國의 獨立承認을 決定, 上奏裁可를 經하여 一日午前有田外相은 同國政府에 對하여 書翰으로써 此旨를 正式通告하엿다 이에關하여 外務省에서는 一日正午情報部長談을 發表하고 帝國의 態度를 發表하엿다 그리고 滿洲國政府에서도 슬로바키아國을 正式承認할 方針으로 目下 그手續을進行中인바 이結果 슬로바키아國 承認國은 獨逸, 波蘭, 匈牙利, 日本, 滿洲國等 五個國이 되는바이다

◆帝國의슬로바키아國承認에關한 情報部長談 昭和十四年六月一日 帝國政府는 슬로바키아國政府에 對하여 同國官관스키ー外務大臣의 書翰으로 同國의 獨立을承認하고 同國政府를 正當한政府로서 承認하는旨를 通告하엿다 슬로바키아國은 今年三月十四日 獨立을宣言하고 同月二十三日 獨逸國과 保護條約을締結하고 그政治的獨立과 領土保全을 保障하기爲하여 獨逸國의 保護를 바더 軍事外交에關하여 獨逸國과 緊密한連絡을 取하고잇다 따라서我國이 盟邦獨逸國과 特殊關係를가진 同國과正式外交關係를 맺는은 當然한 일로 今後兩國의 國交가 益益緊密하여 寄與하는바잇슬것을 期待하는바이다

滿洲國도 슬로바키아獨立承認

【新京一日發同盟】지난三月十四日 獨立을宣言한 슬로바키아國의 首班으로한 政府는 滿洲國에 對하여 正式으로 獨立을 通告해왓스므로 滿洲國政府는 諸般 國內手續을 完了하고 一日附公文으로써 슬로바키아國에 對하여 正式承認을 通告하엿다 이와同時에 外務局長官談을 發表하고 同國은 盟邦獨逸國과 保護條約을 締結하여 特殊親善關係가 잇는만큼 防共樞軸의 實質的强化에 寄與하는바 多大함을 表明하엿다

○○機編隊로 厦門奥地猛爆

【厦門一日發同盟】我海의 荒鷲一隊는 一日早朝부터 大擧○○機로써 厦門對岸奥地의 敵을 連續爆擊하여 多大한 損害를 주엇다

山東半島中央 萊陽附近猛爆

【上海一日發同盟】艦隊報道部六月一日午後四時發表=北支方面에서 二十九日 三十日兩日 海軍航空部隊는 山東半島中央部의要衝萊陽과 그附近의敵을 猛爆하여 潰滅的損害를주엇다

人事·集會

◆稻鎭夏氏(忠南用道産業部長)新任人事次一日來社

市況(二日)

◆米豆·生絲·綿引◆ 當限 二三〇〇 先限 一二三〇〇

半百年以上의 歷史와信用을證明하는 天眞熊膽丸의效力

病을고치시려는여러분!

効力잇는名藥을速히選擇하시요

天眞熊膽丸은 過去明治十六年八月十四日에官許된 仙人秘方의家傳藥으로서 在來半百年以上(五十七年)의사이에 여러가지症勢로 坐而待死하는病者에게 놀날만한效果를주어 오날까지 몃萬名의患者를 起死回生케하엿는지 이것이야말로 不知其數라 아니할수업습니다。이런故로 여러사람들이 異常히녀이어 神奇한 仙藥이라고하며 또는 어떠한 關係로 이와가티効力이神速하고 또 正確한가하야 別別傳說이 世間에만히傳播하엿지만은 科學이發達치못한 半百年前의 일인故로 到底히 알아볼 道理가업섯습니다。그러나最近에와서 東京帝國大學藥學科와 又는 斯界權威者로부터 動物臟器藥品硏究의發表에依하야 겨우多少의眞理를探究하게 되엿습니다。말하자면 天眞熊膽丸은 動物臟器藥中에도 唯一無二한 萬古의靈藥『熊膽』을 主要原料로하야 製劑하엿는故로 新學說上『動物臟器藥療法』의效果에 偶然히 一治하게되엿습니다。이러한關係로 天眞熊膽丸의 效能에對한說明은 여러가지로 만히 잇스나大略主要한몃가지를 簡單히紹介하면다음과 갓습니다。

◉主治効能◉
氣力減退、精神昏迷
滯症、積症、酒毒
食傷、瘀血症、諸中毒症

다음과가튼症勢가잇는분은 速히天眞熊膽丸을잡수시요

一、心臟이衰弱하야 조금만한일에걱정을심히하며 또는 놀래기를 잘하는분
一、元氣가不足하야 感氣가잘걸니시는분
一、腎虛腰痛과 遺精多夢으로因하야 元氣가 漸漸衰弱하는분
一、憂愁思慮가過多하야 精神이昏迷하고 머리가 무거우며 記憶力이 衰退하는분
一、早老症狀이잇고 長壽못할徵兆가잇는분
一、四肢가 느른하며 身熱이개이지아니하야 顔色이蒼白한분
一、飮食을조금만먹어도 가삼에 꼭 해달린것가트며 恒常 배가불러 포만증이 심한분
一、年久月深한滯症과積症으로 苦痛하는분.
一、過飮後, 飮食調節이不充分하며따라무서운胃腸病에걸린분
一、오랜 瘀血症으로, 坐而待死하는분
一、口味가 一切업고 原因모르는속병으로 厭世症이잇는분
一、가삼이 답답하면서 헛구역과 트림이 심한분
一、急性 或은 慢性의吐瀉霍亂으로 苦痛이 甚한분
其外産前産後의産母에게 强壯劑로使用하야도効力迅速합니다

全國有名藥房에서販賣함
近處藥房에,업거든,直接本舖로注文하시요!

買藥時의注意
本舖의五十七年間信用과 聲價를利用하야 類似品을 조흔藥이라고 推奬하는藥房과 行商人이잇사오니 買藥時에는 반드시 藥包紙右便에 赤色으로印刷한 明治十六年官許라는文字에 注意하시요!

便利한注文方法
藥代金을 金部振替口座大阪七八九九九番으로보내시면 도안들고 藥至郵便配達夫가直接 貴宅에까지 가저다드림니다 萬一危急한病者가잇할時는 普通爲替 又는 電報爲替로送金하시면 藥을곳貴宅까지配達하도록 緊急發送하겟나이다 振替或은爲替送金方法은郵便局에가서무르면 親切히잘가르켜줍니다

藥價 一劑 九圓 德用品 參圓 試用品 壹圓貳拾錢

仙人秘方 家傳靈藥
天眞 熊膽丸

本舖 大阪市十三東之町二ノ二〇 天眞堂藥房 電話北六〇三六番 振替大阪七八九五九番

005131

新女性의身體發達은 롱치마의德澤이다

世界大戰이나흔洋女의"쇼트·스커ㅡ트"가 朝鮮에와선짧은치마로流行

女學生衣裳考現學 ③ 制服以前의梨專新旧流行譜

일천구백년초기의걸본이를되할 할부는 단단한 한문에만 그치지알코 「지식을 가저야만 나라와 사회를 위기에서 구할수잇다」는 구든 신념에까지 이르럿섯다 그리하여 해외유파도 버쩍 늘엇고 또 조선안에는 속속 학교가 서기 시작하엿는데 이화학당도 정동(貞洞)에 새교사를 지어야할만큼 생도가 늘엇다 일천구백사년 구월에는 중등과를 두게되고 일천구백십년(명치사십삼년)사월에는 동양의 풍운이 위급한가운데 드듸어 여자대학과를 새로 설치하게까지 되엇섯다

이즈음에는 벌써 조선녀학생들은 세계정세를 알고 조선의처하여잇는 위치를 알어 생활개선을 부르짓게 되엇던것이다 봉건사상이 무너저 버리는때이라 그반동으로 여인들은 가정의행복보다 사회에 나가기를 원하여 「시집안가고 사회운동에 몸을 바치겟다」는 열렬한 이상을가지고 공부를 하는한편 매일가티 모혀서는 시사를 경제를론난하는…토론하는것이엇다

◇

이가티 과거에 반역하는 신녀성이 이화에서 속출하여 한때「이화출신」이란 말이 훌륭한 여투사를 의미 하엿섯다 이가튼 정신은 여인들의옷에 도나타나 검소한빛파 오감을택하게되어 대개는 흰저고리(통치마)로 긴저고리 그때저고리의 반동으로 리가되엇다) 와검은 치마엿고 새로나은 경제회를 선엇서다 미에보다도 한지실학을 차정지고 전등보다 새로운것을 자주것이다 이화저고리에 검은치마는 도한오래동안 교복이가튼 한전통을 만들엇다 (기숙사나 학교에서는 다른색옷을 만히 입엇지만) 대화이 설립된 그해를 일학년에이 되엇다 세레는학생더 달러것스나 학립을노그대로 노팟다 그리하여 대정삼년제일회 졸업생이 나왓는데이때 청음으로 졸업식에 검은사각모자를 쓰고 히에서 제복우에 검은 "까운"을 입엇다

◇

이화학당에서 제조를 시작한것은 일천구백이십삼년(사실년간부터이엇는데 일천구백이십삼년에이르러 "미스·필러" "미스·파이" 두선생은 학생에게 농구(籠球)와 정구(庭球)를 처음으로 가르쳣다 이 운동경기로서는 가슴이좁고 연약한 조선여성의 체격을 좀더 튼튼하게 만들려는 것이엇다 이에 먼저 두선생은 조선녀인의 가슴이 좁은이유는 가슴을 치마의 허리띠로 졸라매이는것이 조치못하다는 원인을 발견하고 「지나여자가 발을 졸라매는 것과 조선녀자가 가슴을 졸라매는것은 매한가지로 나쁘다」고 말하여 치마개량을 단행하엿다── 이때까지의 허리띠를 대신한 치마를 개량하여 어깨에서 그대로 내려입는 치마를 입게한것이엇다

조선의 롱치마는 여기서 나왓는데 (일천구백이십삼년)이것이 조선녀학생의 체육향상에 큰공이 잇섯슴은 말할것도 업다 여자의 가슴을 넓게하기위하여 시작된 이롱치마는 그후 시체가 되어서 인제는 아마 영구히게 속될 한전통이되고 말엇다

◇

어때로부터 기미년의 고비를 넘기까지 풍조는 검박하여서 별반 이동은 업섯스나 일천구백이십사년부터는 치마기장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엿다 이"쇼ㅡ트·스커ㅡ트"는 본래 구주대전(일천구백십사년)이 사변동안이나 계속되어 옷감생산이 적어지고 또여자들이 남자의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활동에 불편한 예날의긴"스커ㅡ트"를 버리고 짧은 치마로 변하엿는데 이새로운유행은 드디어 조선에도 들어오것이엇다 그리하여 도회지들의 머리를 네줄로 이마우를 재른헤어도를 구하고 치마자락은 자꾸 자꾸 기어올라 일천구백사십년에이는 무릅에서 두세치아래까지 올라오고야말엇다 아직도 그러 꼿지못하고 미끈하지못한 다리의 곡선미(?)가 거리를 활보하게는 그때이엇다 그러나 이"쇼ㅡ트·스커ㅡ트"가 조선녀인에게도한 여러각선미에 대한 따짐을 새로계하고 따라서 조선녀인의 다리를 바르게하엿데는 이것도 공이잇다하면 혹은 지나친 찬사일까 (사진 상은 예파생들의 수업식에 입은 예식제복 하는이 회대의 초기졸업생으로 조선서 처음으로 화사모에 까운 입은모양)

祭基町、孔德里 楊州 間 沿線住宅도併營

京春鐵道"地下鐵"餘聞

기보=경춘철도회사에서 경성─춘천선 기점을 당초의 계획이엇던 제기정(祭基町)을 동대문 즉 창신정(昌信町)으로 변갱하여 제기정 성동역(城東驛)에서 동대문까지에 지하철도를 부설하여 연내로 착공할 계획으로 그허가원을 경기도를 거처서 총독부에 제출하엿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와 갓거니와 동회사에서는 이게획실시와 병행해서 동대문에서 양주 공덕리(楊州孔德里)에 이르는 약사십리의 철도연선의 논밧과 소택지(沼澤地)를 대량으로 매수하여 이것을 지하철도를 팔때에 나올 흙을 가저다가 메꾸어서 회사의 부사업으로 주택지 경영을 할계획을세우고잇다 성동역에서 동대문까지의 지하철도는 삼키로 칠분 조선이 수로는 십리가까운 거리라 여기서 파낼흙은 놀랄만치 거창한분량에 달할터로 그처분만하드라도 심상한 노릇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분도할겸 논바를 메꿔서 그우에다가 주택지를 경영할 계획을 세운것이데 양주공덕리는 최근갑자기 성대(城大)이공학부, 광산전문학교, 지원병훈련소등 여러기관이 드러서게되어 종차시내에서의 통학 통근이 엄청나게 늘어갈것을 예상하고서 공덕리까지로정 크다

한이어다가야 그리고 한편고신수다대에 주민을 끄을한방편으로 동대문에서공덕리까지는 현재의 각정거장사이사이에 전차정류장과가튼 간이역을 만히두어 처음에는까솔린자를 그리고 삼년후 한강수전(漢江水電)이 발전되면 이전력을 끌어다가 기차레일위로 전차를달리게할려이라고한다 지하철도하며 연선주택지 경영하며 기차선로의 진화계획하며 경춘철도의 이상파가튼 연속적인거탄에 주택난과 교통난으로 시달리고잇는 시민의기대가 크다

梨花高女防共展大盛況

會期二日間을延長

보기─ 부내 이화고녀(梨花高女)에서는 오월삼십일일 유월일일 이틀동안 그학교창립 오십삼주년기념으로 방공방첩전람회(防共防諜展)를 열엇더바 학교관계자와 학부형들은 물론, 일반참관자들도 다수히 내관하여 예상밧게큰성황을 이루엇스므로 금이일과 삼일 이틀동안 기간을더연장하여 일반에게공개하기로되엇다 (사진은 전람회장의 일부)

大陸經營의兵站線 清津의偉容暫見

本社主催滿支產業視察團動靜

當地有志發起 一行을爲한歡迎會開催

【輸城에서 特派員李相昊發電】 감격에 넘치는 전송을바드면서 삼십일밤열시 경성역을떠난 우리산업시찰단일행은 오군하루를 차안에서 지냇스나 모두원기왕성하여 삼십일일 오후일곱시 오십분 청진(淸津)에 도착하엿다 도중 삼방(三防)계곡의 신록을 꿈가운데 지나친것은 유감이엇스나 오늘하루는 새파리케맑은 첫여름의바다를 마음껏바라보면서 한가족파가티 친하여진 단원일동이 재미잇는 잡담의꽃을피운것은 무엇보다도 재미잇섯다 청진역두에는 본사의 사기(社旗)를 선두로하여 지사원과 다수유지가 출영하여주엇는데 이미 해가진후이엇스므로 시내시찰은 못하엿스나 일행은 청진의경제적중요성지며 또한 청진의 자랑인 어항(漁港)시찰을 하엿는데 어항의시설이 근대적이고 또한설비가 굉장한데는 놀라지 안흘수업섯다 일행은 시찰을마치고 여덟시조금지나 일행을환영하여 간담회를 열어주는 감격의 연석에 참석하엿다 이연석은 청진사회의 중진들인 유지가 공직자들을 망라한 실여명의 유지가 일행을 친절히 초대하여주것으로서 일행으로하여금 이번여행을 한층 의의갑게 느끼게하엿다 밤로기퍼 열한시쯤지나 주객이모두 충분히 간담을 마치엇슬지음 일행은 연석을 물러나와 일행의숙사 계림관(鷄林館)에서 일정첫날의숙박을 하엿다 이튼날아침은 여섯시부터 준비를서둘러 일곱시에는 벌써 역두에 집합하여 여덟시삼십분발 모란강(牡丹江)행열차에 몸을실엇는데 감회기픈 하루밤을보낸 청진을 뒤로남기고 기차는 북으로 달리고잇다

日步二十錢!

끔찍한貸金業者引致

일보(日步)이십전이라는 전무후무한 변리를받고 무진식으로 제비를뽑아서 대부를하고 잇는 고리대금단체가 경찰의철퇴를마젓다 일일 종로서에서는 종로일정목이십구번지 영창공제회(永昌共濟會)주인 정모(鄭某)를 인치하여다가 취조중이데 그는 영창공제회라는 계를조직하고 회원칠백명을 망라하여 회비를한사람에게 꾸어주되 무진식으로 제비를뽑고 이자는백원에대하여 하루에 이십전식의고리를 바더오던것이 탈로되어 대금업취체령위반으로 엄중히처벌할 모양이다

自轉車에매달은 大金을紛失

부내봉래정(蓬萊町)일정목이십번지상전상점(桑田商店)경성지점 점원 고장문삼(古庄文三)(二一)은 일일 오전아홉시반쯤 식산은행(殖銀)에 예금을하러 현금일천사백삼십사원삼십오전과 소절수형 수표를 주머니에너허 자전거손재비에다걸고 남대문통(南大門通)식은본점에 다다랏을때 주머니가 간곳업시 업서저버렷스므로 놀내여 본정서에게출하엿다

麻浦의兒屍 溺死體로判明

삼십일일 오전열시쯤마포강가에 다섯살쯤된어린아이의시체가 떠잇는것을 동리사람이발견하고 용산서에 알려와검시하엿는데 그결과 노량진정이십팔번지에사는 김용보(金用甫)의 손자 종성(鍾聲)(六)으로 그전날강가에나가 놀다가빠저 떠나려온것임을 알게 되엇다

名探偵은 엘레베ㅡ터아씨

【엘레베ㅡ터】아씨는 명탐정─삼십일일밤아홉시경 화신(和信)오층에서 엘레베타가 지게를향하여 내려오는데 엘레베터속에서 괴청년이 손님의 포켓트에서지갑을 훔처내는것을 엘레베터양 박정애(朴貞愛)(一七)가 발견하고 영리하게도 중간정거를 하지안코 도외지게로직행한다음 문을닷친채 도적을잡어서 종로서에 인도하엿다 조사한결과 범인은 아현정(阿峴町)구십이번지 김중회(金重會)(二一)로서 소매치기 상습자인것이판명되엇다

今日 天氣 晴一時曇

碧眼의妻子를膳物로 錦衣還鄉한金成功氏

獨逸서青年技師로囑望밧던工科大學出身

조선이나흔 젊은「엔지니어」로 오랫동안 독일에서 공장기사로 활동되어오던 청년이 고향에를 찾아왓다 일일오후한시삼십분 경성역에 도착된「아까쯔끼」에는 백림(伯林)공대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독일에서 기계학을 전수하던 김성공(金成功)(三七)씨와 그안해 캐트리(三一)여사가 일경하엿다 김씨는 경흥(慶興)출신 김태봉(金泰鳳)(五一)씨의 외아들로서 아버지가「할빈」에서 공장을 경영할때 그곳에서 나가지고 일천구백이십삼년 독일에 건너가서 백림대기계공장을졸업한다음 그곳「데꾸니」의학위를 어더서 예전의 중동연공장기사로잇다가 공학박사로 들어오한것이다 부인은 독일태생으로서 연애결혼으로 코리ㅡ드(七)븐아들까지 나서 데리고왓는데 동양사람으로서 「데꾸론」의 학위를어든이는 김씨가처음인동시에 그곳에서도 기계학의중진으로 촉망을밧고잇는이다

그의숙소인 반도(半島)호텔에는 안찬영(安贊永)씨를 위시하여 삼사인의 독일유학생이모여 잇섯는데 김씨는 기자가찻즈니 그는조선사람으로서 독일에서도조선에는 처음이라 조선말이 서툴나마 통화에는 큰지장이업섯다

고향의땅을 밟으니 감개무량합니다 서울은 이야기만듯고 남의나라에서삼십이되도록 자라낫군요 고향이 이처럼 훌륭한곳인줄은몰랏습니다 구라파보다 훨씬좃습니다

다시캐르라부인을 향하여 감상을 물으니

남편의고향은 아직 한예이야기속에 잇는신비로운곳인양들어왓슬뿐입니다 실지로대해보니 이처럼아름다운 산천이엇던가하고기쁨니다 비할배업습니다 하고그의 얼굴에는 감개기픈정서가들고잇섯다 더욱 김씨는 서울에는 삼사일동안 묵다가할빈으로 돌아가게되엇다(사진은김성공씨와 벽안의처자들)

九十餘勇士의肉彈戰!

明夜로迫頭 씨름大會는

억센朝鮮의象徵 南北의壯士總登場

榮譽의王者는누구?

씨름조선의 최고봉인조선씨름대회주최와 본사후원의 제삼회전조선씨름선사권대회는 명일밤과 사일오후 일곱시 반도조선일보사대강당에서 거행하기로되엇다 각지에서 내노라고뽑내는 장사들만이 참가하엿는데 그중에도 지난해의씨름의 왕자 황주(黃州)의 송병지(宋炳智)군을비롯하야 령남(嶺南)의 상승장군 라윤봉(羅允鳳)군 관서의 거장 허승화(許承和)군 현관언(玄寬彦)군 김 등에다가 관북의 홍원(洪原)의 김항락(金恒洛)군 신포의 이성주(李成株)군 하상진(河相眞)군 외에 일류맹장인 송파(松坡)의 스며 바른씨름에는 송파(松坡)의 강호 허승영(許承影)군을 필두로 파주(坡州) 고양(高陽) 독도(纛島)와 경성장안에서 자신만만한 투장들이 참전하야 열전을 전개하기로 되엇다 의기와 열로써 대전할 중학무전은 보성(普成) 경신(儆新) 배재(培材) 중동(中東)의 제교에서 삼십여명이 등장케되여 총실로 구십명을 돌파하야 반도 씨름사상에 첫기록을 지을것으로 기대되는바 출장선수의 소속파 씨명은 다음과갓다

왼씨름部

金麗展(開亭) 金和亨(安州) 金章伊(新京) 玄寬彦(黃州) 金瑞淳(安州) 諸相淳(黃州) 許承和(纛城) 金昌玉(黃州) 崔景洪(安州) 宋炳智(黃州) 尹夏炳(瑞興) 池知洪(价川) 張良浩(京城) 河永得(新浦) 金南龍(新浦) 金信洛(洪原) 崔武準(京城) 高麟錫(京城) 金東建(京城) 李成株(新浦) 河相眞(新浦) 鄭元燮(新浦) 禹敬洛(新浦) 金恒洛(洪原) 朴成浩(永興) 金聖鎬(興南) 愼鎬大(金川) 崔晦鐘(開城) 羅九出(大邱) 朴春乘(元山) (以上三十名)

바른씨름部

李興審(纛島) 成鍾吉(纛島) 金德順(纛島) 盧點龍(往十) 李點龍(松坡) 李鉉義(坡州) 韓福萬(松坡) 金彰植(坡州) 宋榮植(松坡) 許商彰(松坡) 申成伊(纛島) 李衡培(往十) 林啓雲(纛島) 朴睡光(京城) 韓鍾熙(京城) 嚴漢龍(京龍) 宋性鉉(高陽) 金三文(京龍) 朴聖完(京城) 崔永俊(京城) 尹貴成(楊州) 李基煥(京城) 鄭在春(高陽) 林鍾金(京城) 韓壽鎭(高陽) 朴大根(京城) 孫萬泰(高陽) 申用植(楊州) 李盛福(楊州) 李在學(楊州) 李德根(龍山) (以上三十一名)

中等部

崔亨鎬(中東) 黃麟振(永登) 李鶴鎭(中東) 李駿基(儆新) 高永吉(中東) 朱宇鍾(儆新) 金東郁(中東) 金惠培(儆新) 兪成俊(中東) 朱 鎭(儆新) 朴義燮(外語) 韓鳳鎭(儆新) 鄭基永(龍德) 崔東讚(儆新) 申良雨(培材) 邊海植(中東) 金永琢(培材) 朴永弼(培材) 金俊興(培材) 尹永七(普成) 金昌烈(培材) 石在德(普成) 高廷立(培材) 許 鋼(普成) 金炯邦(培材) 金虎鎭(普成) 郭正彬(中東) 鄭東稷(普成) 金重在(普成) 崔璇泳(普成) 李采馥(中東) (以上三十一名)

總人數九十二名

風紀紊亂의 舞踊所에鐵槌

師範吉木을引致取調

일지기무용연구소에 경찰의철퇴─일일 본정서에서는 길야정(吉野町)이정목백일번지 무용사범 길목(吉木)을 검거엄중취조중인데 그는전기 장소에다가 무용연구소를내고 소녀들을 모아노코 풍기상 아름답지못한짓을한것이 탈로되엇다

三醫專對校陸上에 京城醫專優勝

第四回三醫專(大邱、京醫、平醫)陸上競技對抗戰은 一日午後二時부터 京城醫專運動場에서 擧行된바 다음과가튼 成績으로 京城醫專이 七十九點으로 三年間連覇하엿던 大邱醫專을 물리치고 優勝하엿다

【百米】1相田(大醫)一一秒五(本大會新記錄) 2山本(京醫) 3加納(同) 4李重桀 5沼本(同) 6金灝(大醫)

【千五百米】1宋德修(京醫)四分五二秒 2元璜(平醫)四分五一秒二 3久保(京醫) 4李用三(平醫) 5李祚實(大醫) 6白井(同)

【投圓盤】1李春燮(京醫)三四米六四(本大會新記錄) 2佐藤(大醫)二四米一五 3上野(京醫)二三米九〇 4尹起五(平醫)二三米九一 5李榮鎭(大醫)二二米四八

【走高跳】1普丸(大醫)一米七〇 2相田(同)一米六〇 3茂田(京醫)一米五五 4伊藤(平醫)一米五〇 5尹起五(平醫)一米五〇 6小林(京醫)

【四百米】1相田(大醫)五五秒 2加納(京醫)五五秒一(以上本大會新記錄) 3金灝(大醫) 4麻(平醫) 5野田(京醫) 6任重洛(平醫)

【高障碍】1李榮鎭(大醫)一六秒五(本大會新記錄) 2相田(大醫) 3金容潤(京醫) 一七秒三(參考記錄) 4尹起五(平醫) 5伊藤(同) 6任鳳業(京醫)

【投槍】1李春燮(京醫)四〇米三 2尹起五(平醫)三七米四〇 3小林(京醫)三六米九〇 4佐藤(大醫)三三米四五 5花岡(同)三二米七〇

【五千米】1久保(京醫)一八分二秒八(本大會新記錄) 2宋德修(平醫)一九分一八秒六 4大庭(大醫) 6李用三(平醫)

【走幅跳】1山本(京醫)六米四八 2李榮鎭(大醫)六米三四(以上本大會新記錄) 3相田(大醫)六米一四 4尹起五(平醫)五米五三 5茂田(京醫)五米四〇 6沼本(平醫)

【繼走】1京城醫專 二分一秒二 2大邱醫專 二分一七秒 3平壤醫專

【順位得點】1京城醫專七十九點 2大邱醫專七十一點 3平壤醫專四十六點

高專籠球第七日戰績

法專 33 (6…3 / 2…2 / 11…15 / 14…10) 30 中專
◇審判…崔昌欽、金容一兩氏

藥專 37 (25…14 / 11…5) 19 世專
◇審判…李應煥、具本壽兩氏

普專 55 (22…4 / 33…8) 12 大學
◇審判…金東源、李應煥兩氏

實業庭球第17日戰績

【府廳】1勝【朝銀】
洪鍾萬・李慶得 3─4 長谷川・相川
大川・洪庄熙 3─4 吳相浩・晉在庭
張南星・梁承殷 4─2 林在錫・金世鍊
白閏輔・李顯基 4─0 小木・鯨谷
宮川・金種岩 4─0 宮尾・尾崎
◇第二라운드
張南星・梁承殷 4─2 長谷川・相川
白閏輔・李顯基 4─1 晉在庭・吳相浩

【商銀】【遞信】1勝
辛昌範・李佳洙 2─4 井下・黃景坤
李輔虎・河村 1─4 杉木・近藤
小田・朴英洙 0─4 李鎬泰・許井
黃基成・鄭士連 4─3 秋山・裵永炫
任泰鎬・李春幸 0─4 渡邊・是河秀
◇第二라운드
黃基成・鄭士連 4─3 井下・黃秉坤
◇第三라운드
黃基成・鄭士連 4─2 近藤・拓木
◇第四라운드
黃基成・鄭士連 4─0 李鎬泰・許井

全國蹴球豫想

(東京蹴球協會) 大日本蹴球協會主催의 第五回 日本蹴球選手權大會는 試合方法의 改正에依하야 興味津津한 競技日程으로 六月九、十、十一의 三日間 神宮競技場에서 擧行하게되엇는데 이에 出場할 八팀은 米四日 關東에서 行하는 全延專(朝鮮)과 東大中俱樂部(四國)의 一戰으로써 出場팀 全部가 決定될터인바 全延專의 勝利는 明白함으로 結局 關東에서는 早稻田慶應BRB、東大、關西에서는 關學、神戶高商、大阪俱樂部에 全普專、全延專이 出場하게되바 對陣決定에依한 初日의 一回戰은 早大가먼저 神戶高商과 東大가 大阪俱樂部에 對하야 各各 有利하다고보이며 慶應對全延專 關學對全普專은 技術伯仲하야 서로優劣을 헤아릴수업다 豫選成績으로 보아서 三試合에 二十三點의 大量得點을 보이고잇다 慶應BRB의 攻擊力은 東大의 追從을 不許하는 戰力을 가지고잇스므로 이팀을 優勝候補의 第一에 두는것도조흐나 體力이 强하며 守備가굿은 朝鮮二팀에게 最初부터 壓倒된다면 오히려 慶應이 危險하다고 본다 關學도 조흐팀이나 底力에 欠點이잇섯스며 早大는 突進에만 偏重하는것가트며 東大는 氣力이 不足하다는데잇서 이 세팀은 先取得點의 氣分에잇서 左右될것으로믿어진다

寫眞은 壯途에오른全延專蹴球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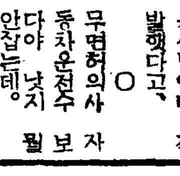
運動

▲庭球=京城實業庭球리ㅡ그第十八日 關東對殖銀(朝銀코ㅡ트)午後四時五十分 東拓對專賣(殖銀코ㅡ트)午後四時五十分 競技開始(觀覽無料)

▲籠球=朝鮮學生籠球聯盟主催 春期리ㅡ그戰最終日 法專對大學(午後四時半) 中專對藥專(午後五時半) 東崇町大學코ㅡ트(觀覽無料)

▲軟式野球=京城銀行團 春期리ㅡ그第六日 東銀對金聯 午後五時 奬忠壇球場(觀覽無料)

참



허가업는여급을 윤심영이나 적발햇다고,

○

무면허의사 자동차운전수 보다야 낫지 안잔는데。

○

그뿐… 사람은 다

○

강계수전(水電)을 협잡해먹은 예순명을 검사국에、

○

밥팔아 논을산셈, 이밥먹자는집헤데, 그래, 콩밥먹자는 협잡야?

○

미결구류로 십삼년이라……

○

징역도 팔자가 조하야 엄는 살수잇는 모양?

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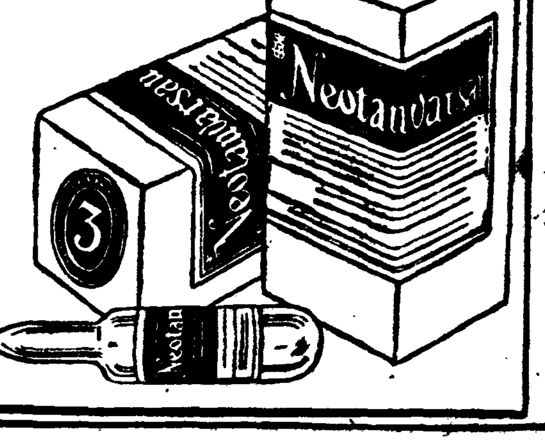
▲六月二日(金曜) 陰四月十五日 ▲干支・庚午 ▲日出 午前五時十四分 ▲日南中 午後零時三十一分 ▲日入 午後七時四十九分 ▲晝間 十四時三十五分 ▲月出 午後七時五十四分 ▲月入 午前五時十五分 ▲滿潮(仁川) 午前五時十五分 午後五時二十五分

靜脈注射用

ネオ・タンワルサン

驅黴砒素劑

國產品の嚆矢



二十五年의 光輝잇는歷史와 熟練된技術、完備된設備에依하야 吟味精選된ネオタンワルサン은 專門諸大家의 推奬에依하야 年年그聲價가 益益노파진다

模造品에注意

驅黴成績의完璧과 治療의完全과를期하는 臨床家諸位는모두本劑를愛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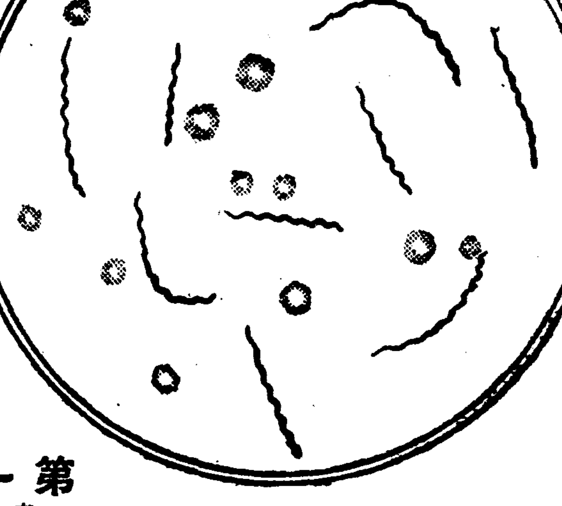
適應症

黴毒의 各期와 黴毒으로 이러나는各種의 隨伴症狀의 治療와 豫防에適합。

또脊髓癆、痲痺性痴呆、回歸熱、一般스ᄇ로헤ㅡ테에因한 疾患、마라리아、鼠咬症、摘氣熱、熱帶苺瘡等에도 特效잇슴

또天疱瘡、扁平紅色苔癬、鱗屑疹等 砒素劑應用의 모든 範圍에 良効잇슴

包裝 一號(〇・一五瓦) 二號(〇・三〇瓦) 三號(〇・四五瓦) 四號(〇・六〇瓦) 五號(〇・七五瓦) 六號(〇・九〇瓦)



또靜脈內注射不可能의 患者에 適當한 皮下注射用 ミオ・アーセミン 잇슴、

또砒素劑와 交互使用에 適當한 蒼鉛劑キフロン의 選用을願함

製造發賣元

第一製藥株式會社

本店 東京市日本橋區本石町三丁目
支店 大阪市東區道修町二丁目
出張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九十六番地
〃 奉天市大和區琴平町三番地

NTO

中部版

近郊住民에또一難 惡臭와파리로受難 衛生思想의鼓吹를要望

이지막날이 절정더위웃옴을따러 모든것이썩기쉬운데 그중에아현정(阿峴町)북아현정(北阿峴町)공덕정(孔德町)마포정(麻浦町)의서부경성일대와 창신정(昌信町)왕십리정(往十里町)청량리정(淸涼里町)등 동부경성일대는 공지가잇는곳마다 방치되어잇서 인분등의비료를주는관게로 악취가나는것은물론 파리가만히꾀이어 근처주민들은 여름한철을 보내기에 큰고통을느끼고잇다 그우에이들 지대에는 위생관념이부족한사람이 만흔관게로 불결한물건을거리에만히 버려서 더럽기짝이업고 소변은대개수채에버리므로 하수구의정리가되지안허 걸가의하수구는 하수구라느니보다는 길이썩는다고 할만큼되어잇다 종래당국의 위생시설과방침은도심을중심으로하고잇서 이들지대의주민들은 위생시설을 힘닙지못하야 크게유감으로 여기고잇스며 더욱이파리가만히 생기어이런더러운곳에잇는 미균을 즉접주민의 음식물로 옴겨오기때문에 큰위협을 느끼고잇는바 이들주민은 당국에서 하로바삐 하수구의정리를 하여주며 빨리의구제등 저급한주민에게 위생의인식을주도록 엄중히 취체하여주기를 갈망하고잇다

西部某住民談

여름이면 쓰레기썩는 내음새와 모혀드는 파리때문에잠시도 마음놋코 음식을먹을수가업스며 파리통을 너덧개식노코 날마다한두시간식 때려잡어도 여전이나 동리에서 금방금방 몰려들므로 여간귀찬코 어려운일이아닙니다 당국에서 저급한주민들의 불결한행동을 엄중히 취체하여주어야지 그러찬코는 이근처의 발전에도 관게가크리라고 생각되며 우리는 여름동안은거룸더미속에서 사는느낌이 잇습니다 운운

楊州面協議會 卅一日에開催

【楊州】 개선후처음되는 양주면협의회는 삼십일일 오전열시부터 면회의실에서 개최되엿다 처음인만치 한사람의 결석도업시 정각에참집하여 먼저 자문기관의 의의설명이잇슨후 새로도히의원의 개인소개가잇섯다 다음에 의석순번을추첨으로 결정하고 제일자문안 조흥세(助興稅)징수에대한 협의가잇서 원안대로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제이자문안 세출세입 보조사업 인변소개량보조 분뇨개량비보조 감자(甘藷)저장창고비보조 위생조합비보조 신문구독비보조등의 자문안을 가결한후 정오에 폐회하엿다

公定價格에依하야 廢品回收에注力 廢品利用報國會活動

한해동안에 약사백만원어치라는 엄청난 넘마를내는 경성에서는 사변아래 폐물이용보국의취지를 철저히하고저 폐물이용보국회까지만들고 칠십오만부민에게 그취지선전을하고 잇거니와 금년이야말로 작년의나쁜성적을 단숨에회복하고저 여러가지비책을 꾸미고잇는중인데 위선동보국회에서는 경기도 폐품이용개생회와 경성넘마조합과 공동으로 당국과가튼 「넘마공정가격표」를 만들어 각가정에 논하주엇다 이갑슨 오월이십일현재로 되어잇는데 그중에는 실지시세 보다 싼것도잇는 모양이나 일반가정에서는 이것이 가장싼값으로 생각하고 넘마를만히모하팔면 용돈에 도움이되는 동시에 전시물자절약이라는 크다란국책에 협력이 되는것을기피인식할필요가잇다

廢品公定價格表 (五月二十日現在)

▲古金物類	(一貫에)
鐵屑	〇、三〇—〇、四〇
鑄物屑	〇、三七—〇、四二
機械鐵屑	〇、六〇—〇、七〇
洋鐵針金屑	〇、一〇
銅屑	三、五〇—四、五〇
眞鍮屑	二、五〇—三、〇〇
朱鐵屑	三、五〇—四、五〇
鉛屑	一、五〇—二、三〇
알미늄延物	五、五〇
同鑄物	三、五〇
銀紙	一、〇〇
▲古綿、毛絲屑類	(一貫에)
綿衣類(大)	〇、七〇
同(小)	〇、一五
裁斷屑	〇、一五
靴下	〇、四〇
白足袋	〇、二五
古小倉服	〇、三五
毛絲屑	四、五〇
모스린屑	四、〇〇
古洋服	〇、四〇
麻衣類	一、一〇
古綿	一、〇〇—一、五〇
▲紙屑類	(一貫에)
官報類	〇、二五—〇、三〇
古新聞	〇、五五
雜誌	〇、二〇
敎科書	〇、一五
雜記帳	〇、一〇
洋紙反古	〇、三〇
和洋反古	〇、六〇
休紙	〇、〇六
트고로스	〇、四〇
▲古고무類	(一貫에)
白고무靴	一、五〇
黑고무靴	〇、五〇
地下다비長靴運動靴類	〇、一五
同布	〇、二五
其他雜고무	〇、一二

夫婦싸움끄테 少婦鐵道自殺

【富川】 십구세된묘령여자가 철도자살한사실이잇다 지난삼십일 부천군오정면약대리(富川郡吾丁面若大里)일백사십팔번지 이선일(李善日)씨의손부 신성순(申變順)(一九)은 지난이십구일 부부간에싸움한후 친가되는 부천군소사면구지리(富川郡素砂面九芝里)신성근씨집으로 밤중에 달아나가다가 어린생각에도 이세상을 비관하고 소사역에서 인천으로 가는 상리(上里)열차 「호미가리」에서 철도자살을한것을 삼십일 아참 발견하고 즉시소사경찰관주재소에 고발하여 윤순사는 공의를대동하고 현장에나아가 임검한결과 자살로판명되엇다

朝鮮初有의夜間中學 德壽商業開校式 一日、舊貞洞小學校에서

조선에서 처음되는 야간중학교—경성공립덕수상업학교(德壽商業)개교식 입학식은 하로밤 저녁다섯시부터 서소문정(西小門町)정동보통학교자리 동교사에서 각지경기도지사와 고교장 섯보육하하 도학무과원대원을 파 상내사설명도열하가운데거행되엿다 먼저일동이 궁성요배를 하고 국가합창 칙어봉독하고 교장의훈사와 내빈의축사가잇슨후 학교장의회고(學藝)에이어 고사가잇섯고 「바다에가면」을 합창하고 폐회하엿다 (사진은개교식식장)

德壽商業合格者

閔大智男 山形壽男 李鍾烈 李[illegible] 南相[illegible] 竹谷俊夫 吳[illegible]煥 李[illegible] 明鍾元 金昌基 李大全 李[illegible]雨 李丙[illegible] 金仁[illegible] 李[illegible] 張[illegible] 柳大[illegible] 黃[illegible] 李[illegible] 吳升煥 崔重永 沈[illegible] 李光浩 黃昌男 姜[illegible] 朴[illegible] 劉光植 申鍾[illegible] 趙[illegible]相 李元甲 鄭明[illegible] 徐[illegible] 白[illegible]吉 朴基[illegible] 柳玉植 李相[illegible] 朴[illegible] 李致[illegible] 金元邦 崔[illegible] 徐基[illegible] 金世泳 張仁[illegible] 金振洙 白承元 徐成[illegible] 金容[illegible] 高明植 黃子佐 權[illegible] 朴明俊 趙泰[illegible] 黃圭[illegible] 李[illegible]烈 尹炳[illegible] 金炯[illegible] 陳仁吉 元[illegible] 柳時[illegible] 李永昌 李俊伯 金[illegible] 崔永斌 徐丙烈 [illegible] 申[illegible] 柳[illegible] 洪亨杓 魚允浩 [illegible] 金相[illegible] 朴[illegible]善 金東秀 張斗昌 金昌[illegible] 李康[illegible] 金[illegible]源 李相[illegible] 金允基 朴[illegible] 朴[illegible]煥 柳[illegible]浩 金永[illegible] 金珠[illegible] 崔基明 洪[illegible]杓 朴[illegible]泳 梁世[illegible] 朴永源 張源[illegible] 金[illegible] 申洪植 朴[illegible]吉 朴斗永 權[illegible] 丁男[illegible] 尹鍾[illegible] 洪在王 李[illegible] 成[illegible]昌 金成漢 崔英[illegible] 金英洙 河順浩 徐文善 梁在[illegible] 金汝植 吳寬善 洪民村 金[illegible] 金學世 李炯基 崔七奉 林基英

內鮮一體에는 言辭부터謹愼 閔京李郡守訓示

【京城】 금번군수부윤회의에참석하고 도라온 리군수(李郡守)는 지난삼십일일 군내 시사면 면장을 비롯하야 각교 교장 수리조합리사등 백여명을 동군 회의실에 소집하여가지고 지사회의에서 남총독의 훈시의내용을 전달한바 잇섯는데 그요지는 다음과갓다

「내선일체란 조선내에서만강조할것이아니라 일본내지 지식계급에게도 철저히 인식케하여야하며 또 조선인자체가내지화하려는 구든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사소한 용어에잇서서라도 차별적언사를 쓰지안키로 자숙하지안으면 안된다」운운

船腹不足으로 北支輸出米積滯 仁川港의重大한課題

【仁川】 허가제로써 지난단발일까지 북지나방면에보낼 수출미는 인천항에서 약일만톤(유만석)에 달하고잇스나 선복부족이 극도로 심한관게로 쌀의 출적(出積)기한이 지낫슴에도 하등의 도리가업게되어 취인상큰지장을 이르키고잇다 이에그복구책으로는 될수잇는대로 선복의 회착이 느러야 될것임에도 인천항에잇서서는 수송상항이 정기로써 매월일곱번의 항행이므로 한번에 천톤을 실어보내도 칠천톤외 수송력이 지정되어잇다 현재의 실제적취(積取)는 진남포항에기항하여 보전(補塡)하는관게상겨우일천톤에 지나지안어서 조선우선회사의 새기선이취항하여도도저히 현재의체화(滯貨)처리는 극히곤난한상태이다 그런데 수요지의 독촉은 그곳의식량미가업스므로 더욱심하여 가급적 속히이선복문제를 해결하도록 관게자들은 고려하고잇스나 결국에잇서서는 명령항로이외의 적은기선을 이용하는이외는 방법이업게되엇스며 이에그운임은 현재백석에 일백사십이원이며 적은배는 이백에 또한 가마니(叺)에 시설전사리와 더불으로도 수요자측도 어느정도까지 부담상 응급대책을 강구하지안으면 별도리가 업스리라고한다

殺人的雜踏電車에 鐵道局에서實情을調查 京電에重大한指示의參考로

요즘 경성전차는 라는사람이작구 만하저서 칠십오만부민은교통의 위험과 불안을 점점느끼고잇는터인데 철도국에서도 이것을 그저그냥두어버릴수 업는 중대문제로 생각하고 방금 실제교통상정을 조사하는중이다 그리하야 장차 적당한 방책을세워서 경성전기회사당국에 대하야 지시를하게될터이라한다 전차승객이 작구부러가는것은 「까소린」사용제한으로 택씨아마 자동차를 불러타기가 곤란하게되므로 전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만케되엇스며 또한경성부의 인구도 근래에 갑작이 만히불엇기때문으로 전차를 라는사람이 자연히 못게된것이라한다 어쨋든 이대로간다면 부녀자나 노인이나 아이들은 위험하여서 전차를타기 어려울지경이므로 경성전기회사에 대하야 철저한해결책을 세우도록 철도국에서도 신중히 연구하고 잇는터이라한다

005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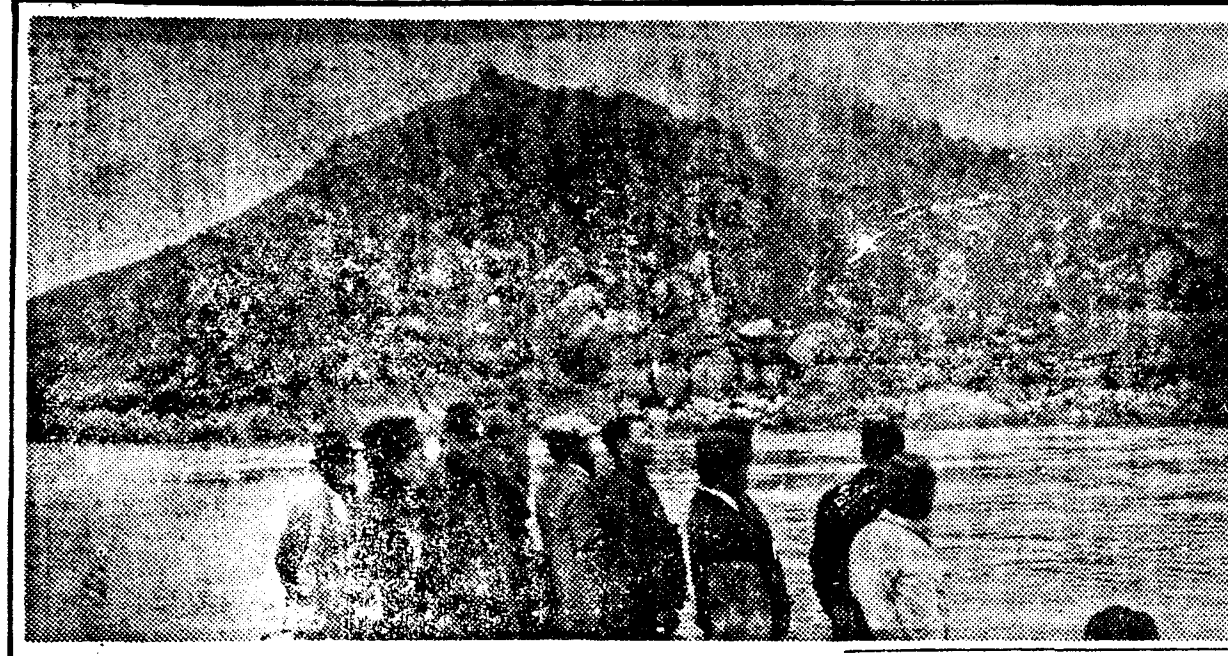
잘팔니면鹽乾魚 廣東에서突然拒絕狀 仁川水產業者에게打擊多大

【仁川】 인천항에서 광동지방에대하여 날개돗치게 수출되던염건어(鹽乾魚)는 요사이 작구만수출이 느러서 금년수출액도 염건어만이 일만오천원에 달하엿스며 지난사월에는 광동에수산업자조합이 설치되엇기 때문에 금후로는 염건어는 광동지방에보내지말라는 거절장이 지난삼십일일에 인천상공회의소에 도착하엿다 그내용은 드른바에의하면 광동이 함락되어조로 염건의 판매가늘엇난치 부러가게되어 경험도업는 장사꾼들이사입을하엿스나 참고가 불완전하여 비만나리면 부패하여 보관에 머리를일코 잇는입방 투매하는자가만은 관게로 군표가격유지(軍票價格維持)에 지장을보이게되어 동지방에 수산업조합이 설치되어 금후는 일본수산, 대만수산 신호해산무역(神戶海產貿易)삼정(三井)등 네곳만수입하야 도매가격을 통일하게되엿스므로 인천수산업자에게 큰타격을 주고잇다한다

◆時局과國民貯蓄 貯蓄銀行頭取 伊森明治

青少年講習會 人的資源開發

【仁川】 대공업항건설도상에잇는 인천은 인적자원의개발이 급무이므로 인천부사회과에서는 사회사업협회와 공동주최로 직공양성을 시키기위하여 청소년강습회를 개최할계획으로 제일기에잇서서는 삼개월동안에 걸처 인보관(隣保館)을 회장으로정하고 제일기에삼십명을 정원으로하엿는데 칠십이명이나 지원자가밀려드러 신체검사와 학술구두시험을보훈 삼십명만 선발하고 지난일일에 개강식을하엿다 수강생은 국어 산술 직업상식을배워 지방단체생활에 필요한훈련을배운후에 부내각기게공장에 직공양성을 부에서하게되엇다 수강료와 교과서 학용품은일체무료로써 부에서지급하게 되엇스므로 동년직공 양성에는 각방면으로부터 다대한기대를 가지고잇다한다



城頭簡易學校 開校準備도進捗 廿二日付로設立認可

【永登浦】 시흥군 수암면성포리(始興郡秀岩面聲浦里)안산(安山)소학교부설 성두간이학교(城頭簡易學校)는 지난오월이십이일부로 설립인가가 나오게되어 근일중 생도모집이 끗나는대로 곳개교할 예정이다 기보한바와가티 이학교는 지난사월에 부내삼십록호 유흥상(劉興相)씨가 학교기지로 밧일천이백평을 기부한것을 기초로해가지고 그간 궁야(宮野)군수와 중원(中園)시학의 진력으로 부근유지들로부터 교사건축비로 일천원을 거두어 방금 공사를 진행중에 잇는데 교사가 완성되기전까지는 당분간 진흥회관을 이용하여 교수를 할터이라한다

阿片中毒者인 汽船火夫逮捕

【仁川】 아편중독자인 기선화부가 인천서에체포되엇다—대련기선주식회사(大連汽船株式會社)의소속선인이성호(利成號)가 지난이십구일에 진남포를거처 삼십일오후세시삼십분에 인천항에 입항하게되자 인천서원이 선실

和光分校에 걸床百個寄贈 李、權兩氏의美擧

부내 관수정(觀水町)에잇는화광학교(和光學校)의 분교로비민아동을 교육하고잇는 도암정(道岩町)화광학교 분교에는 일일아침그동백리 사삼번지 이중열(李

白晝、安城에火災 損害는約五百圓程度

【安城】 지난이십구일오후여섯시반경 안성읍서리 한병용(韓炳用)의 집에서 불이나서 안성소방원의 진력으로 이웃집 김희경(金喜慶)씨집까지 연소되고 동칠시경에진화되엇다 그원인은 불을때다가 어린아이가 롱을치우는사이에 연소된것이라하며 손해는약오백원가량이라고한다

精動指導講習會 八、九兩日道에서開催

국민정신총동원 경기도연맹에서는 정동의 강화철저를 도모하고자 오는 팔구이틀도청제일회의실에서 정동지도원강습회를 개최하기로되엇다 수강자는경성부 내무사회총동원 삼과장외에 각부군시학 소학교장 군당일속 각경찰서 경무주임 금조이사등 이백이십육명으로 강습과목과강사는 다음과갓다

◆萬民輔翼 京畿道知事 甘蔗義邦
◆國體明徵 京城師範學校長 渡邊信治
◆大嚴의華祀에對하여 朝鮮神宮權宮司 吉田貞治
◆國民精神總動員에對하여 朝鮮聯盟常務理事 由上治三郎
◆軍事講話 講師未定
◆時局下에잇서生業報國의길 大日本農友會幹部所長 松田喜一

時局宗教講座 三日開城、社會館서

【開城】 동아의신질서 건설에의한 민중의 신념은 일면 종교적훈련에서 배양시킬필요가 잇다하야 이번 개성부에서는 조선보교총감 장전관선사(長田觀禪師)의 래개함을 기회로하여 오는 삼일오후팔시 사회관(社會館)에서 시국강연회를 개최키로 되엇다는바 청강은 무료라하니 일반은 다수래청해주기를 바란다고한다

◆演題 時局과禪의活作用

明나라가는朝貢使臣 最後의눈물씻든곳 이름도灑淚島、傳說도만히간직

江華支局 李澈

❷

향발도에서 「모로도」까지 두시간 출항지에서부터 전항해 임금시간만에 우리일행은 목적지 「모로도섬」에 다다랏다 일행은 적저상륙하는 기세와 중천장군가는 용맹을 띄우고 상륙하얏다 한번와다가라면 엇어진다고해서 모로도(毛老島)라고 어느등자푸리칠하는분의 자시다한다는 지금와서는 모ー두 그러리라고 인식하게되엇다 사실에 잇서도 생전에 한번이나 올기이지 두번올것도 되지못한에 그로 일리가잇는말이라고 기자도 생각하엿다 그러나 지금에 부르는 「모로도」는 그먼저는 쇄루도(灑淚島)라고 불럿젓스니 그일홈 소매로 가득이 고인 눈물을뿌리엇다하야 "쇄루"(灑淚)섬이라고 전해온다하니 여론 이가튼 의문을전설에는 전설도 만히 잇스나 "모로도"만은 당세에 전세를 보아 이가튼 눈물겨운 장면이 이곳에 엇젓스리라고 그누가 부송할것이라 지낫날의 눈물겨운역사를 묵묵히 말지안코잇는"모로도" 그일홈도구하야 한해도(航海圖)에 나라난일홈은"우도"(偶島)로되잇스나 의연 외국어로는(MoBo.Somp)본명을 찾고잇다

◇

"모로도"를 중심으로 한바도 은점도(銀點島)를 갓가히하고 서북 이십해리에 대소연평도(大、小延坪島)를비롯하야 구지도(求地島) 가지도(家地島)그보다 가까히 미력리도(味力里島)백석도(白石島)를 안고 다시 삼십해리를 나아가 황해도해주(海州)의 용당포(龍塘浦)와 칠십해리 북쪽에 대소청도(大、小青島)를 바라보고잇다 남으로는 신도(新島)선유도(善遊島)등을발아래에두고잇는 이섬은 주거자가 아홉집에 사십여명으로 이곳에사는 이씨(李氏)(*)라는부인은 이곳에서나서 이곳에서 시집가고 이곳에서 늙어미가 되엇다는바 이부인의남편 황씨(黃氏)야말로 이섬을 처음발견하고 주인이섬을 독재한「모로도섬」에 주인이 엿음이 틀림업슬것이다 그러나 세월이갈수록 이들의생활에도 위협이닥처오고 외게의거친바람이 불어드려오기를 시작하여 일시는 홍삼(紅蔘)밀조장도된일이 잇섯다고하다 지금와서는 어기(漁期)를따라다니는무리를 마 후조(候鳥)떼몰리듯시 하여 가사(假舍)를 이섬안에 어누구석이고 빈틈이업시 자리를 잡고잇서 지금은 뻬여호나되나 어기가지나면 이들은 다음의여장으로이동코 원주자(元住者)아홉집만이 알뜰이 남고만다고한다 바로 이곳이 「모로조기」를잡은곳으로 연평도나 칠산파와리배에다 그물을 싣고 조기를잡는것이 아니라(무론 그물질로잡은배도잇스나) 이섬을 중심으로 조수(潮水)가 몰려 나아가면야 른사장(砂場)이 불어나게 되는데 이사장에다가 말장을박고말장에다 그물을 매여두면 다음 조수가 드러올때에 멋모르고지나가던 조기떼가 이그물에 걸리여 사람의 밥이되고 마는바 이가리하야 잡는 그물을 건간망(乾竿網)이라고 불은다 그러고 그물을처노흔 거리는 삼사정(三、四町)으로 수십수식처 노핫스므로 멀리서 볼때에는마치 바다미테서 산호림(珊瑚林)이 떠올른것 갓고 조기가 그물에 걸리웟슬때는 일때장관을 일우고 잇다 그물눈마다 조기가 걸리웟고 조기에 비늘마다 래양에반사가 되어 마치 은빗신기루가 떠도러오는장관을 보인다 (계속)

(사진은 모로도의일부)

毛老島조기[illegible]

驪州勤勞報國團 餘暇를타서美擧繼續

경기도 여주(驪州)근로보국단제이、제삼출동대원 각이십오명은 최、주(崔、朱)양단장지휘하에 경경선(京慶線)철도공사에종사하여 근로보국단개시이래 놀라만한 능률을내엇다는데 단원일동은 이에만족하지안코 자원해여 휴일에 매일 작업장동근도중쇠의폐품을 수집하여 이미 십여원에 달하여 방공기재비의 일부로 군경비부에 헌납하엿다 또 동보국단에서는 이지음 일의틈틈이 비품여거 여주신명신사와 여주소학교에 기증하는등 칭찬이놉다

仁川商議에서 商業部會開催

【仁川】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오는 삼일 오전십시부터 동회의소회의실에서 상업부회를 개최하고 다음과가튼사항을 협의하리라한다

研究事項
一、商工相談所擴充에關한件
二、損失補償制度에關한件
三、中小商工業救濟對策에關한件
四、金融組合手形取立에關한件

楊平龍門里多文里 駐在所와市場新設

【楊平】 양평군용문면다문리(楊平郡龍門面多文里)에서는 지난이십일부터 주재소 시장신설에 다문리일동의주최로 축하식을 삼십일까지거행하엿는바 활동사진 씨름대회와 여러가지유희등경대회를 거행하엿고 끄테씨름대회에는 양평군내 김갑용(金甲用)군이 우승하엿다고하며 시장은 오일 식일로되엇다고한다

安東市北一條通九丁目 永昌膠皮工廠 主 崔昌煥 電話三〇〇一番

各種ダイヤ、修繕及再製 平車製造 安東市新柳街六號 新滿ダイヤ工業所 主 白熙善 電話三五三七番 支店 安東市興東街五三 日滿ダイヤ工業所 安東市縣前街四七號 新京ダイヤ工業所 新滿ダイヤ工業所 新京西三馬路

安東市九番通一丁目 李泰永 電話二七二三番

滿支名藥 各種藥品 安東市一番通五丁目 國境大藥房 振替口座 京城二三一五一番 奉天一三四三九番 滿鮮補腎丸總代理店

土地建物 倉庫委託 貿易保險 安東市大和橋通八丁目 大東產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金基鴻 專務取締役 李裕弼 電話二五〇三番

祝滿洲版發刊

安東市市場通九丁目 安東新興國民高等學校 理事長 金虎贊 電話二二二八番

內科 肛門科 花柳病科 小兒科 安東市官電街九十六號 大同醫院 院長 金命燁 電話三六〇一番

內科 泌尿器科 肛門病科 安東市四番通八丁目 金星醫院 院長 金浩興 電話四〇八二番

內科 外科 小兒科 婦人科 安東市二番通二丁目 泰誠堂醫院 院長 白元賢 電話二四九六番

安東市二番通二丁目四 南滿土地改良株式會社 專務取締役 金東昊 電話三〇七六番

安東市堀割南通八丁目二 三和精米所 主 金志賢 電話二四八九番

安東市六番通九丁目 丸鴨精米所 主 金志善 電話二三九二番

穀物貿易 委託賣買 酒米專門 並精米業 安東市堀割南通八丁目 韓興精米所 主 金鳳周 電話長三一三八番 電略(カン)八(カン)

自轉車及附屬品直輸出入 卸商 安東市四番通八丁目 高輪商會 主 高有權 電話三二五一番

安東市三番通六丁目四番地 朝日旅館 主 朴文月 電話三二九八番

穀物貿易 委託賣買 運送通關 安東市一番通五丁目四 西昌號 西昌運送部 西昌通關部 電話長四六五八番

貿易委託 運送通關 安東市三番通七丁目三 日聖公司 主 金聖福 電話三〇四九番 日聖運送部 日聖通關部

貿易委託 運送通關 安東市大和橋通八丁目 金安公司 主 金淳傑 電話二七八六番 金安運送部 金安通關部

滿鮮特產 委託販賣 製粉原料 運送通關代辦 安東市三番通七丁目三 義成商會 義昌運送部 主 金炳浩 電話二一二三番

運送通關 安東市江岸通四丁目 安利公司 主 尹炯奎 電話三四三七番

鳳城縣普通學校 職員一同

貿易委託 運送通關 安東市大和橋通七丁目 共和公司 主 文傑倫 共和運送部 共和通關部

海產物貿易 委託收買 運送通關代辦 安東市三條通二丁目八 東興商會 主 申麟官 電話二一四八番 直營 丸山運送部 金大成運送部

安東市下川端町弟九號 廣生堂醫院 院長 金最玉 電話二九六四番

安東市大和橋通六丁目 海東棧 主 張景淳 電話二四八五番

安東市六番通五丁目 李雨田

米穀商 安東市四番通五丁目 韓成商店 主 金得琭 電話二八四番

安奉線鳳凰城驛前 三信精米所 電話一四八番

安奉線鳳凰城驛前 大同醫院 院長 元斗植

安奉線鳳凰城驛前 三成精米所 主 元基成 電話一二一番

安東市四番通九丁目 中央寫眞舘 主 吳炳道

安東市大和橋通九丁目 中央キネマ 電話二七九二番

滿洲興業銀行安東支店 鄭來溶

滿洲興業銀行安東支店 姜會喆

安東協成銀行本店 崔忠元

安東市下川端里三五 安東藥房 主 吳昌秉 電話四一九二番

安奉線鳳凰城驛前 昌米 吳秉 電話一五二番

鳳凰城驛前 代書人 朴判承

鳳凰城南大街 黃信太

安奉線鳳凰城驛前 東新精米所

安奉線鳳凰城市場街 滿盛號 主 朴龍彬

府民館 6月2日3日 晝十一時・夜七時 —實話・鑛業時代讀者優待— 新興 魂三部作 決定版 二十世紀フォクス社・特作 第七天国 主演 シモーヌ・シモン ジェームス・スチュアート 妻の魂 山路ふみ子 沖津清郎 料金 一般¥.20 讀者¥.10

短篇小說

바다로간다 (24)

金南天 作 鄭玄雄 畵

五、雙頁의 畵帖(四)

그러케 안타깝게 기다리던 날비가 내린다. 영자는 가슴이 어두엇다. 실심한 나즈로 하늘을 처다본다. 구름이 엇는지 업는지 알수업다. 그대로 연기가 낀것처럼 보오얏다. 그보오얀 가운데서 별의 눈처럼 가는다란 빗방이 판뜩 판뜩하엿다. 오구시퍼서 오는비 갓지는 안타. 그러나 시름 시름히 오는비도 하루 이틀을 계속한때가 잇지안는가.

영자는 창장을 다더버리고 그대로 침대에 와서 누어버렷다 이불도 덥지 안코 몸뚱어리를 예의어지 내 던진채 천정을 바라보며 누어잇다.

(비가 오면?)

그러나 비가 오면 준호와의 약속이 전혀 휴지쪼각이 되어버리는것은 아니엇다. 화창한 첫여름의 망서슥에서 무르녹는 자연에 안겨 발랄한 청춘을 향락할수는 업다 하여도, 비가 오면 비가 오는대로, 얼마던지 그에 적당한 『스케쥴』을 꾸밀수가 잇지 아니한가.

비가 오면 박그로 나갈수는 업을것이다. 그러나 그대신 방안에서 준호와 마주 안저서 얼마던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는 잇지 안흘까. 만흔 사람들이 바라다보는 밝것보다도, 오부한 방안에서 아기자기 하게 그러고 단 둘이서……

(혹시 그 이상의 예상하지 안혓던 새로운 즐거움이 나를 차자 줄는지도 알수 업는일이 아닌가!)

방안에서 단 둘이 마주 안자, 비오는날 향락할수 잇는 즐거움, ―그것은 짐작할듯한 즐거움일는지도 알수 업다. 깨끗한 즐거움이 아닐는지도 알수 업다. 그러나 그를 차자줄는지도 알수업는, 이『예상하지 안혓던 새로운 즐거움』에 영자의 생각이 머치슬때, 그 생각이 부르는 공상은 자꾸만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드리고, 드디어 그것은 준호와 몽자에게 대해서까지 어떤 미안한 감정을 느끼게 하엿스나, 그러나 여태것 그의 부근에는 손곳하나 대이지 안혓던 새로운 감정이 그의 가슴속을 구렁이처럼 설레면서 도는것을 고지낙히 향락하고 시픈 생각이 불쑥어 머리로 드는것도 감출수업는 사실이엇다. 그는 두눈을 지긋이 감고 두다리를 쭉 빼더본다. 양팔로 가슴을 꼭 껴안어본다. 쾌감이 머리로 치밀어 올라온다.

그러나 몸을 좀고 푸우 한숨을 내지프니 사변이 허전하고 어덴가 통시 불안하다.

(준호와의 교제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희망하고 잇는것은, 어러한 마즈막 강정일가? 어떠케 나는 그것을 마즈막의 『골』로 정하고 줄다름을 치고 잇섯던 것인가? 정구사를 뿌리치고, 몽자를 여지업시 밀어버리고, 버리고 나는 그것을 목표로 열렬한 경기선수처럼 달리고잇섯던 것일까?)

그러타고는 단정할수업다.

그러나 그러치 아니라고 부인해버릴수도 업는것갓다.

(누가 그런걸 예상하고 꾀이고 또그런 계획을 세우고서 만나러 할것이랴!)

생각해보니 준호에게 며안이 가는것갓다. 그대로 가벼게, 하루를 깨끗이 보내는것이 ― 만나서 즐겁고 떠러저선 더욱 즐거운 그러한 경지가 아닐까부냐!

몸이 갑자기 피곤하다. 만흔 정력을 낭비해 버린뒤처럼 사개가 풀리고 조름이 온다. 그는 눈을 감고 다리로 이불을 끌어덥고 잠을 청하엿다.

얼마동안 눈을 부첫다 펀듯 잠에서깨니 방안이 훤하다.

(날이 개엿나?)

천대를 겨더차고 창문을 열어 보앗다. 검은 구름이 두세뎅치 뭉겨 돌앗스나 벼는 개어고 구름이 덥히지 안흔 푸른 하늘에서 맑은 햇살이 퍼붓는다.

(하늘도 무심치는 안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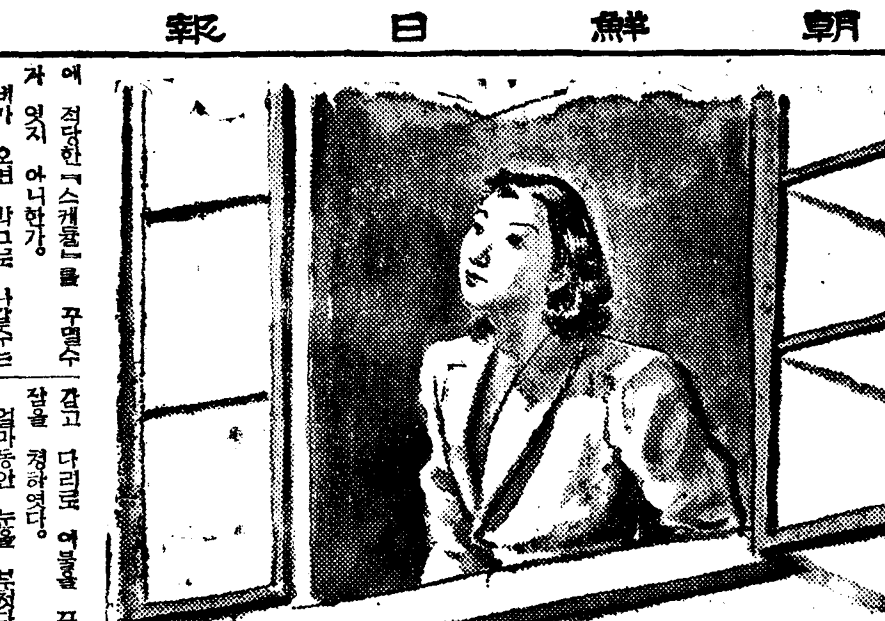
고 생각하면서 반가운 얼굴로 시계를 보니 열한시엿다.

그는 창문을 열고 공기를 가라 넣고면서 나슬 씻고 화장에 버빼다. 아침밥은 지어 먹을틈도 업서지만 먹고 섬지도 안햇다.

카나리아의 말대로 개성미를 발휘하도록 화장을 하고 머리를 곱게 빗질하고 손톱 다시 씨섯다. 『매니큐아』를 하고 몸서화가를 몸갑도 무척다.

그는 녹색바탕에 흰문의가 눈송이 처럼 서린『원피ㅣ스』를 가볍게 가려입고 처음으로『배일』이 달린 모자를 썻다. 구두까지를 신고 면경아페 서본다. 돌아서서 뒷모양도 본다. 다시 또 돌아서서 압모양을 본다. 『핸드빽』을 껴보앗다 들어보앗다한다.

시계를 보니 아직도 시간이 좀 남엇다. 다시 침대에 안저서 시간을 보다가 어욱고 그는 방을 나섯다. 태양은 구름에 숨어서 한근 서어햇다. 그러나 그는 우비가튼걸 준비하려 하진 안햇다.



朝鮮美展特選集

金仁承 文學少女

李應魯 荒凉

鄭鍾汝 三月의 雪

金基昶 古 翫

審査員의 選後感

第一部 非常한躍進 特色을尊重

審査員 矢澤弦月

總督府當局의 美術에對한 關心의 發露인 新美術館의 建設은 어떠케作家의 心理에反映햇는가 今年出品畵를보면 딴은大作이만흔것과 또그어느것이나力作이고 昨年에比해서 實로顯著한進境을 보이고잇다 그러나이것은 반드시美術館 新設의影響만이 아닐것이다 非常時局下에잇는 吾等日本人이 各方面으로一段緊張해서 各各그擔當한 各自의일에 努力邁進하는 結果의 表現이아닐가 또各部의 參與諸君의 그周圍 後進에對하여의指導가得宜한뒤의 所產이기도할것이고 勿論그功績을 認定해야한다 나는昨年에 十年만에 鮮展의審査에臨해서 鮮展創設以來 十七年을 經過한오늘 半島美術에 어떠케躍進하면서 잇는가를 생각하고 크게愉快하게 생각하고 잇스나 審査를마치고 陳列된第一部의作品을 巡覽하고 좀지나치게 入選이되지안혓나하는 感想을 가진點이잇다 그런데 今年出品을 보고는 그危變는一掃되고 一個年間의 進步가 너무顯著해서 大作力作이 極히만흔데 一驚햇다 따라서 入選數도 昨年보다 增加하고 그質도向上되엿다 實로半島美術을 爲해서 慶賀해마지안는다 今後는 多年指導하든 指導機關의 整備와作家諸君의 精進으로 特色잇는半島美術의 樹立을 希望한다 審査에잇서서 作品에對한 感想等에對하야는 入江審査員이 따로所信을發表하리라고 생각하나 簡單히 審査에대해서 그態度를 말해서 出品作家의 參考에供하고저한다

一、表現에 未熟한點이 잇슬지라도 優秀한 素質을 窺知할수잇는것

一、半島의 오랜傳統을 墨守하면서 進境을 보인것

一、正確한 自然觀照와 自由롭고도 純眞淸新한 表現手法으로써製作한것

一、特色잇는 色彩와重厚한 技巧가 그야말로半島的인것

一、中央畵壇의 作家의 優秀技法을 攝取 해서 消化하려고 한것

一、堅實한 技法과眞摯한 努力에 依한것。

等等…缺點은 엇서도 한가지 뛰여난그무엇을 把握한것은 될수잇는대로 그것을 認定하고 今後의 進展을 期待獎勵하는 意味를 품겨서 鑑賞햇다 長시켯스면이고 또相當한 技倆을 가지고도 作品에 不足에빠저서 落選된사람들의 參考라도되면 幸이겟다.

第二部(西洋畵) 의미東京水準 朝鮮色의出現을期待

審査員 伊原宇三郎

鮮展은 今年第十八回를마저서 逐年顯著한 進步의 자취를보여 고잇는것은 慶賀해마지안는다.

第二部의 入選作을 通覽하면 特히 傑出한 作品을보이지안코 나 그것은 着着發展의途上에잇는 鮮展으로서는 當然한일로서 차라리 全體의 平均水準線이內地의 大展覽會에比해서 秋毫도 遜色이 업는것을 자랑해도조타 고생각한다 就中가장기피느낀것은 半島人畵家의 刮目할 擡頭로서 將히그大部分이 經綸이豊富한 靑年層이므로 將來에큰期待를가진다 方今은 半島에는 鮮展이라는 實로 豪華한 美術機關이잇스나 一方 指導機關이아직完備되어잇지안흐므로 鮮展이 最高標準이되어 자칫하면 作家의마음이 풀어지기쉬운點이업지 안흐므로 이點의 警戒自重이必要하다.

또內地에서는 諸種團體가서로對峙해서 어떤意味에서는 美術界가 分裂狀態에잇스나 鮮展에서는 完全한綜合展의 모양을가지고 內容的으로도 內地의展覽會보다 多樣性을가저서 무엇보다도 幼稚한分裂狀態에 어떤無用한 … 今後에도 더욱잘 擁護해서길러 갈주엇스면한다.

一般的으로보아서 堅實한作風의것이만코 審選畵中에도 그저流行을좃고 新奇를뽐내는것은 거의업섯는데 다만이는 現在로서는 할수업는일이다 全體의 作風傾向에 東京의直接影響이너무 强하고題材以外에 朝鮮이라는 地方色이 藝術的으로 나타난作品이 極히적엇스나 氣候風土生活 모든 點으로도 內地와相違가잇는 朝鮮에서는 將來朝鮮獨自 美術이생겨나와도 조타고생각한다.

第二部는 出品數가 매우만흐므로 限定된會場의 壁面에는 皆然嚴選이될밧게업섯다 더구나 十枚 추려도조흘作品이 잇섯스나 遺憾이나그만두엇다.

受賞한十二枚는 모두훌륭하게되어서 例年보다는 종數가 만흐나 今年이以下로 주리기는어려웟다.

또一般入選作中에技巧가 幼稚한 巧以外에 무엇인가 버릴수는업는 作家의 素質이보이므로주려다 어떤 훌륭한作者는 周圍의流行에 눈을 팔지말고 自己의 조흔素質을伸

第三部(彫塑과工藝) 大作들이優秀 古典的技法의조흔맛

審査員 高村豐周

第三部는 彫塑과工藝가합께昨年度에 比해서 進步의자취가뚜렷하게 눈에띄인다

彫塑에서는 昨年度에는 等身大以上의 全身像은 僅少하고머리뿐이엇섯스나 今年은 그것이 아주 大作이만흐나 彫現像을 묘해다 어는作家의努力을 如實하게말하는것이다그우에 等身以上의 全身에 優秀한 것이 만흔것은 차라리 一驚할일이다

그러고 巨大한 浮彫一點과 實材彫刻(石膏着色이 아닌것 即 石材靑銅으로된것) 二點이陳列된 것은 特記해도조타

工藝에서는 入選作品의 水準은 確實히 昨年度보다 노파젓고 大體로 朝鮮의古典을 現代生活가운데 살려서 또傳統的技術가 운데 다시 新手法을 담으려는 傾向이다

다음에 工藝의 欠點을 말하면 昨年度의 特選에 追從하는傾向이보이는것이다 가령 昨年度에 樂浪文樣의손箱子가特選이 되엇는데 今年度에는 가튼 樂浪文樣의 盆이 매우 눈에띄엇다 昨年에 樂浪文樣의 손箱子가 特選이된것은 손箱子의構造와 크기와 樂浪文樣과의 關係에 作家的感覺의 優秀性이 보이기때문이고 무슨 樂浪文樣을 推獎한것은아닙니다 그러므로 樂浪文樣을 그리면 아모것이라도조타고 생각하면 매우잘못이다 그러고 刺繡는 꽤드러왓스나 大部分은모방것이엇다 그 技術에대해서는 推獎해도 조흔 것이 엇섯스나 工藝는 單純한技術만으로는아니된다 根本이 되는 것은 圖案이다 그圖案이 刺繡作品에는 아주되지안흔것이 만허다 特히 四條派風의 日本畵를그대로 屛風이나 掛軸에 刺繡하는것은 꼭그만두어주엇스면한다 刺繡는 刺繡로서 獨特한 分野를開拓해야한다 螺鈿의 室內用具類도 亦是裝飾過剩의 傾向이잇다 이는螺鈿의特色이겟스나 할수업다고할지도모르나 적어도 文樣이 整理되어야하겟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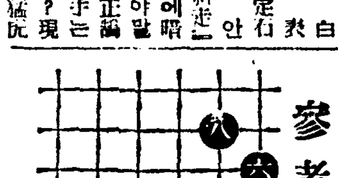
橋本七段·韓相龍大棋戰

▽─龍虎相搏戰에 未來의風雲을難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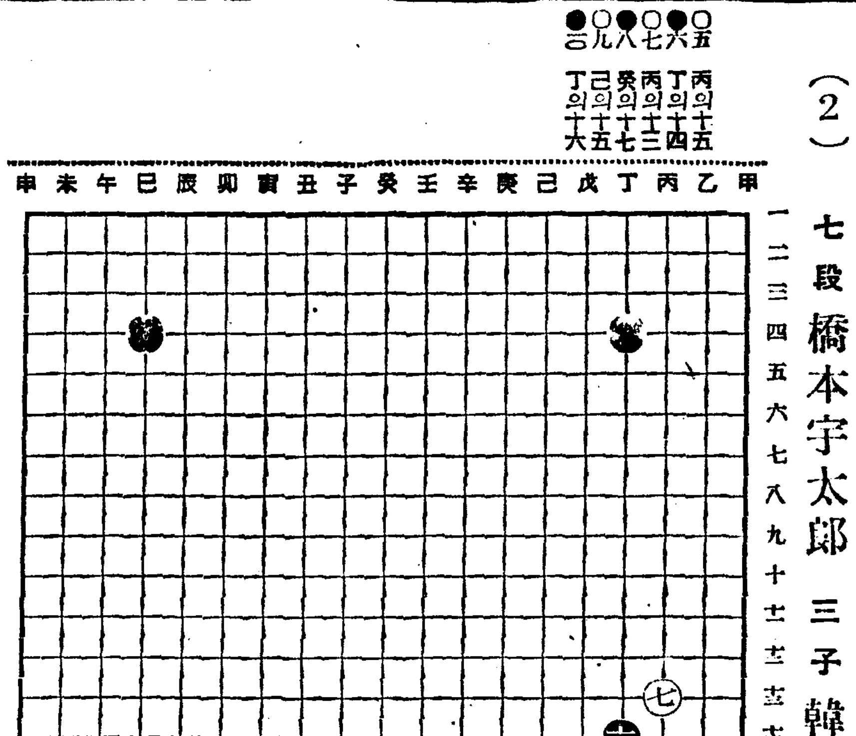
觀◇戰◇記◇權◇秉◇郁

始以正合하고 終以奇勝은 碁家의原則이다 白五가丙의一五에그대로 押着하니 어느日作家의 純粹한 風趣는잇는듯하나 黑으로해선 꼭丁의一六으로 問路前出하엿스면 黑壁은 반드시防하고야말러이다 그階梯에 戊의一五도 兩斷하여서 機會를擇擬하엿스면 엇더할까─그러기에 參考圖를 附한다 그러나후 好敵家라면는 擧할지? 黑六이丁의一四로 直引하니 어도로한 中央進出에 厚壯味가 含有하엿다 어때에白은 要思하기를마지안코 丙의一三으로 飛騰하야 應映中에 黑衛에서 各鉉를수는듯 그러나黑은그 激突에 甚하지안하고 毅然히癸의一七 西中部로向하야『三間反夾』으로 敵逐을沈潛하여 白一兵을 도모攻追할氣勢가 象되니 참 여기대하야 定石原理에 能通하며 攻擊치 안홀수업다! 白九가『小飛走』로黑을 끄을듯시하며 中部에暗出을 꾀하니 要컨대 이야말로 不斷不離의 碁道의 正編이다. 黑一〇은別高尙한 手는 아니나 懇切한感이잇는듯? 現下情勢를 回顧하면 神龍猛虎가 서로다투는局面에 未來의風雲變化를 아직 推測하기어렵다!

參考圖



(2) 七段 橋本宇太郎 三子 韓相龍



○五 丙의十五
●六 丁의十四
○七 丙의十三
●八 癸의十七
○九 己의十五
●一〇 丁의十六

娛樂과趣味

發聲放送 田園·海洋·山谷三重奏 農樂·禽聲等錄音放送 D·K·六月"프로"의"써ㅡ비쓰"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서는 유월중에 아래와가티 조선내의 산과들과 바다와 전원의 시취(詩趣)를 그대로 녹음해서 전파(電波)를 통해서 만천하에 전하려는게획을 세웟다고한다

(1) 六月四日午前여섯時四十五分─일곱時"새울움소리"

서울서동북으로 약사십리가량되는광릉(光陵)부근의 산명수려한곳에 모여드는 온갓새들의 우롬소리를『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준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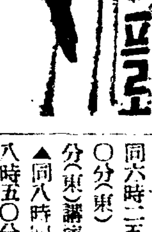
(2) 六月八日午後여덜시四十分─五十五分"조기우롬소리와 조기잡이현장광경"

연평도(延坪島)밤의 조기잡이 풍경을현장에서 녹음해서방송하며 또전하에도 진기한조기의 우롬소리도 들려주리라한다

(6) 六月二十五日午前여섯時四十五分─일곱時"季節의소리"

강원도강릉(江陵)은 옛날부터농악(農樂)이 성한곳이데 그곳내에는 농악대가 서른일곱곳에나 잇다고한다 그들의 이민농악풍경을 역시『마이크』를 통해서 전해주리라한다

라디오프로



二日(金)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
▲同 七時 宮城遙拜
▲同十時三十分 氣象通報 料理製法 日用品時勢
▲正午 (東)時 報
▲午後零時五分 室內樂(레코ㅡ드)
▲同零時三十分 뉴ㅡ스
▲同一時十五分 婦人時間『衣服洗濯法』 裁縫專門 李 興 □
▲同四時 뉴ㅡ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童謠와唱歌 批峴公立普通學校兒童 伴奏 金鈴妙 指揮 文敬淑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趣味講演『六月을읊픈詩歌』 李 秉 岐
▲同七時三〇分 뉴ㅡ스 天氣豫報
▲同七時 (咸興)演劇이야기 金 松
▲同八時 經濟解說 東亞日報 高 永 煥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어화靑春 二、唱劇調 春香歌 朴綠珠 鼓手 丁元燮
▲同九時 라디오드라마『五月의 熏風』(全五景─金永壽作) 劇研 長權一晴 그의妻朴永信 會社員洪開明 그의妻池亞順 給仕崔銀燕 演出南海林 音樂金駿泳
▲同九時三〇分 뉴ㅡ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ㅡ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地方으로보내는뉴ㅡ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二六) 宋 今 璇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支那語講座(二十四)▲同一一時(東)小學生時間(低學年)▲午後零時五分(城)室內樂▲同二時(東) 小學生時間『高學年』 ▲同六時 國民歌謠(平壤)▲同六時 兒童劇(裡里)▲同六時二五分(東)講演▲同七時二〇分(東) 國語歌謠▲同七時四〇分(東)講演▲同八時(東) 管絃樂▲同八時四〇分(東)時局演藝▲同八時五〇分(編) 琵琶▲同九時一〇分(東) 時事解說

一行百科辭典

▲소위 특허(特許)와 실용신안(實用新案)은 이러케 다르다 연필이 업는시대에 연필을발명하면 특허고 발명되어쓰이고잇는연필에 무슨고안을 더가하면 실용신안이다

당신은엇재서 애기를못낫는지 아십니가 모르십니가

결혼한지三년이나 五년이지나도 애기를못낫는부인! 당신은엇재서 애기를못낫는지 그원인을아십니가? 모르십니가? 세상사람들은『애기는팔자에매엿다고』합니다 즉 애기못낫는것은팔자가나쁘서그러코 애기를만히낫는것은팔자가조와서그러타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미신입니다 이와갓치모면세상에 또한 의약이발달되여서 죽을사람도살려고, 약한사람도튼튼하게하는이때에우리가 이와갓튼미신을그대로밋고가마니잇슬수가잇슴니가 건전한부인은 결혼한지일년이못되여서애기를배는것이보통입니다 만일에 누구던지결혼한지 三년이지나도애기를못배는부인이잇다면그것은 틀림업시부인병에걸린것입니다 즉 자궁에고장이생긴것입니다 어병은 여기저기가몹시압허서일을못하고알커나 자리에두러눕거나 하는병이안이므로남이보기에는 무병한사람갓치보이며 자기도무병한줄알고잇는분이잇습니다 실상은월경이불순하거나대하증이흘으거나 무슨고장이던지 잇습니다 월경때에는허리가압흐고 월경분량이너무만커나적거나하야 꼭알맛게되지안코 날자도 드나들고 월경전후나 혹은보통때라도 대하증이흘으거나수족이 냉하거나 아래배가압흐거나 얼골에화색이업고 주름살이잡혀서 보기실케되는분 어와갓튼증세가 한가지라도잇는것을깨닷는분은부인병에걸린것이니 하로밧비치료하지안흐면안됩니다 어병을고치지안흐면 남과갓튼애기도낫치못할뿐아니고 부부간에 참된도조흔재미도볼수업고 따라서 살림도자미잇게할수업는것이니 부인병에걸린증세가잇는분은 속히약을쓰고 근치하지안흐면안됩니다 그러면부인병만치료하면 부부간의재미도알수잇고 귀여운애기도날수잇는가? 그것은물론입니다. 그러면 어더한치료법이 조흔가? 부인병치료에는 병원에가서치료하는것도조치만 가정부인으로서 날마다병원에단이기도 어렵고 병원에가면 몸을남에게 보이게되므로 병자리가자리인만큼그렇기도하고 비용도만히걸리므로 이와갓튼치료법은도저히 하기어려우나 어겻보다도 가정에서 아모도몰으게 얼마안되는 비용으로근치하고 애기까지나케하는『명지모와오기나구』의치료법을다음에 소개하겟습니다

애기도잘나코 몸도튼튼하게

조선과가치 위생시설이부족한곳에서 악마와갓흔병으로하야고생을하시는수백만명자 그중에도특히 부인들은 자기몸에병이잇드래도병원에가기는북그럽기도하거나 너무머러서못가고 돈도만히들이므로치료를못하고 집에서근심걱정을하시는분은『명지모와오기나구』를쓰시기바랍니다 어약은三十여년전부터 부인병치료에유명한약인데 누구던지이약을쓰시는분은전부효과를어드므로 약효에 탄복하십니다

업는체하야도 실상은잇습니다

부인병은 병자리가자리인만큼북그러워서 병에걸여잇스면서도업는체하는분이만흐나 실상은여간만치안슴니다 부인들을한사람식조사해보다면 대부분이 부인병에걸여잇스면서도 북그러워서 부모에게도말을못하고 남편에게도말을못하고 동모들에게도말을못하고 혼자만걱정을하면서 세월을보내는일이만습니다 따라서 치료도속히하지안코 그대로내버려두거나 제절로낫기를바라거나하는부인도잇습니다 그러나이병은 절대로제절로낫지안흔병이므로 월경이불순하고 대하증이흘으고 수족이냉하고 음부가헐거나 따겁거나 소변이자조마렵거나 음식이잘먹히지안커나 얼골에화색이업거나 애기를못낫거나하는부인은 반드시부인병에걸여잇는것이니 병에걸여잇는것을 북그러워할것이 업부러자기는 병에걸니지안흔것처럼 하지말고 조금이라도몸이 이상스럽거나 고장이생겻을때는주저할것업시 제일조흔부인병약『명지모와오기나구』를주문하야쓰시기 바랍니다 어약은가정에서살하면서 아무도몰으게복용할수잇는편리한약이고 약효는특별히조와서 얼마안되는비용으로곳치실수 잇고 약을쓰는중에는몸이속에서부터더워지고 기분이조코 화색이나고 길이길이잘복된병이근치되므로 부인병약으로는일본에서제일입니다 어약은근래에생긴약이아니고 지금부터三十년전부터 제조하야판매하는약이므로 그신용은 세상사람이다아시는바와갓치유명한약입니다 명지모는 먹는약인데 어약을먹으면속으로 잘복된병을낫게하고 오기나구는 음부에넛는약인데 음부의흠집을낫게하고 대하증을흘으지안케하고 기타 모든자궁의고장을낫게 하는약입니다。어와갓치『명지모 오기나구』두가지약을갓치쓰면병이속히근치됩니다

부인병치료에는 두가지약이잇습니다

사람에는 남녀의구별이잇고, 각각하는일도다르니 남자가하는일을여자가못하는수가잇고 여자가하는일을남자가못하는수가잇는것입니다 병을고칠때는먹는약으로만낫는병과 먹는약과외용약두가지를갓치써야만 근치되는병도잇습니다 그러면부인병은 엇더케치료해야하느냐하면 물론먹는약과외용약두가지를쓰는것이조흡니다 이병은 원인이속에잇거나 전신에잇는수가만코 혹은 자궁에생긴고로약을쓸때에도 먹는약으로속에생긴병을낫게하고 외용약으로 자궁에생긴흠집을낫게하야 바로 언으로병을낫게하는것이 제일조흔치료방법이니 반드시먹는약과외용약두가지를쓰시기바랍니다 먹는약으로는『명지모』가제일조흔효과가잇고 외용약으로는 오기나구가제일조흔효과가잇습니다 누구던지 어약을주문하야쓰고자하는분은 병세를속임업시자세히적어서 본포로보내시면본포에서는 전문가들이여러분의 병세를자세히보고 병세에꼭맛는약을적당하게 대금이환으로보내드리고 또한 선금으로약을주문하시면 송료를본포에서 부담해드리오니 여러분께서편리한방법으로 주문하야쓰시기바랍니다

藥價

命之母		오기나구錠	
十三日分	二圓	八日分	一圓
二十日分	三圓	十七日分	二圓
卅五日分	五圓	廿七日分	三圓
七十日分	十圓	五十日分	五圓

東京市京橋區入船町 合資會社 笹岡省三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電話京橋 一八七七番

婦人良藥 命之母

主効 月經不順 子宮出血 白帶下症 赤帶下症 手足冷症 下腹腰痛 頭痛眩暈 血道產後

廣告

東京市京橋區入船町·笹岡藥房에서는朝鮮婦人에게衛生智識을普及식히기爲하야 朝鮮語로된알기쉽게 자세히 쓴婦人病自宅治療書와命之母의說明書를一般家庭에한권식거저드리오니葉書로注文하지안흔분이라도請求하시기바랍니다

桃花劇場 電龍一三三三

六月二日ヨリ三日間 每日晝夜二回一時七時三十分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全勝キネマ作品◇ 怪童突擊隊 監督 山田兼則 主演 實川 薫

◇松竹大船特作 淺草の鐘 監督 島津保次郎 主演 上原謙 坂本武

◇米リパブリック社超特作◇

次週─海底下の科學戰 生活の勇者

豫告─吾亦紅=雷の光=國境=北海ノ子

新富座 電光五六七七

六月一日ヨリ三日間 每日晝夜二回一時七時開分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全勝キネマ社特作◇ 馬子唄千兩 監督 山田兼則 主演 松本榮三郎 宮川敏子

◇松竹大船超特作異色篇 生活の勇者 監督 澁田修造 主演 水戸光子 笠內美子 岡村文子 坂本武

◇リパブリック社超特級大作 海底下の科學戰 監督 Bリーブズ・イーソン 主演 レイ・クラッシ・コリガン ウィリアム・ファナム

次週─キートンの頑役演 豫告 國境 魂 薫と與太者 北海ノ子

松竹映畫 マネキ

◇松竹大船大作 心の太陽 六月一日부터四日間 主演 笠內美子 三井秀男 水戸光子 突貫小僧

◇松竹京都異色大作 冬島泰三 監督 兩國梶之助 川浪良太郎、伏見信子 伏見直江、久松三郎 土俵に奮った天下第一流…身體は小さくても闘志は張る

各社ニュース

劇團豪華版公演 五月廿七日밤부터 李雲芳 作 悲劇『犧牲華』三幕四場

▲方今▼ 靑春座西北鮮巡演中 東劇直營 博士와그夫人 一幕

東洋劇場 電(本)2154 3640 (現場)(事務用)

六月一日부터四日間 ワーナーナショナル社特作 沙漠の朝 エロル・フリン、ケイ・フランシス 朝鮮名畵 無情과漢江 大衆料金 十錢 二十錢均一

第一劇場 直營 東亞 電本 一七五五番

今週映畫 六月一日ヨリ 階上二十錢均一 階下十錢

各社ニュース

◉ワーナーナショナル社特作 沙漠の朝 監督 Wディターレ 主演 エロル・フリン ケイ・フランシス

◉朝鮮映畫株式會社特作 無情 原作 李光洙 監督 朴基采 主演 韓銀珍 崔南鏞 玄舜英

◉半島映畫社特作 漢江 監督 方漢駿 主演 李錦龍 崔雲峯 尹蓬春 文藝峯 共演